

# 야훼, 엘르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 유대교

성문법

구전법

문자적, 실천종교,  
유일(단일)신

# 기독교의 전통

구약성경 46권

신약성경 27권

교회법과 교회전통  
삼위일체신앙

그리니치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삼위일체신앙

- 가톨릭교회 사제들이었던 루터(1517년)와 츠빙글리(1516년 혹은 1522년)가 각각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함.



마르틴 루터  
1483-1546



율리히 츠빙글리  
1484-1531



하인리히 불링거  
1504-1575



장 칼뱅  
1509-1564

종교개혁 제1세대

종교개혁 제2세대

## 종교개혁운동의 공과(功過)

-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사제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만인사제의 의미)
-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모국어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하루 세 번씩 기도회로 성전제사를 대신하던 유대교기도회에 주의 만찬을 첨가하여 성전예배의 의미를 살린 것이 사도시대의 그리스도교 예배였다.

- 주의 만찬에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 성체신학, 화체설)를 추가하여 그리스도교 예배를 제사로, 집례자를 사제(제사장)로, 주의 만찬상을 제단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물로, 떡과 포도주를 바치는 행위를 봉헌으로 유대교화시킨 것이 가톨릭교회의 미사이다.
- 츠빙글리가 주의 만찬에서 신비(미신)만 뺀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내용 그 자체였던 주의 만찬을 연 4회로 줄임으로써 그리스도교 예배를 기도회로 유대교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개신교 역시 국가종교 혹은 시의회종교였기 때문이다.

- **루터** - 죄 용서, 죄의식에서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해, 은혜의 복음과 말씀 회복에 주력. 잊혀진 원시교회의 원형과 전통 회복(환원)에 적극 반대. 반면에 가톨릭 전통을 최대한 지켜 내면서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추구함.
- **즈빙글리** - 원시교회의 질서(신약성경교회의 의식, 형식, 구조)를 회복(환원)코자 함. 신약성경의 침묵을 금지로 봄. 따라서 악기사용, 성화 및 성상 사용을 금함. 반면에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국교와 교구제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못함. 성인 세례자들만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함. 주의 만찬의 횃수를 연 4회로 줄임.

- **루터는** 오르간 사용을 지지했지만, **츠빙글리와 칼뱅**은 오르간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라며 반대하였다. 성상(아이콘)과 오르간 파괴가 동시에 이뤄졌다.
- **감리교회는** 1780년 오르간을 금지시켰고, **1880년** 런던의 City Road Chapel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1866년** **스코틀랜드 교회**, **1872년** 연합장로교회, **1883년** 자유교회가 각각 오르간을 허락하였다.
- **그리스도의교회는** 1850년대부터 **악기논쟁**이 불거져 무악기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1906년에 갈라져 나갔다.
- **하인리히 불링거** – “교회는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전수되고 확립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잡아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말고 잘 유지해야 한다.”며 **환원**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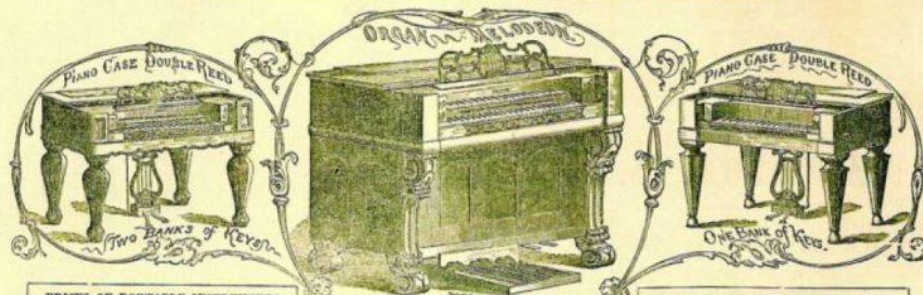
# PRINCE & CO'S IMPROVED PATENT MELODEON

GEO. A. PRINCE & CO., MANUFACTURERS, BUFFALO, N. Y.

Wholesale Depot, 87 Fulton Street, New York.

Combining all of their recent Improvements--the Divided Swell, Organ Melodeon. &c.

(THE DIVIDED SWELL CAN ONLY BE OBTAINED IN MELODEONS OF OUR MANUFACTURE.)



### PRICES OF PORTABLE INSTRUMENTS.

Four Octave, C to C.....	\$45
Four and a Half Octave, C to F.....	60
Five Octave, F to F.....	75
Five Octave, Double Reed, F to F.....	130

### PRICES OF PIANO CASED.

Five Octave, F to F.....	\$100
Six Octave, F to F.....	130
Five Octave, Double Reed, F to F.....	150
do. do. Two Banks of Keys.....	200

### ORGAN MELODEON.

Two Banks of Keys, Five Sets of Reeds, Eight Stops, One and a Half Octave Foot Pedals, One Set of Reeds in Pedal Bass Independent...\$350



Wholesale Depot,  
87 FULTON ST  
NEW YORK.

Manufactory,  
corner of  
Niagara & Maryland Sts.  
BUFFALO.

Wholesale Agents,  
RUSSELL & RICHARDSON,  
Boston, Mass.

W. F. COLBURN,  
Cincinnati, O.  
BAYNE & WEBER,  
St. Louis, Mo.  
R. E. MOULD & CO.,  
Chicago, Ill.  
PH. P. WEBERLIN,  
New Orleans.

The Oldest Establishment in the United States, employing 200 Men, and finishing 80 Instruments per Week.

All Melodeons of our manufacture, either sold by us or dealers in any part of the United States or Canadas, are warranted to be perfect in every respect, and should any repairs be necessary before the expiration of one year from date of sale, we hold ourselves ready and willing to make the same free of charge, provided the injury is not caused by accident or design.

GEO. A. PRINCE & CO.

George A. Prince  
Melodeons  
멜로디온 판매  
광고 (1865년경)

- **마르틴 부처** – 콘스탄티누스와 비잔틴시대의 국교체제에서 그리스도인 황제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감독되던 시대의 교회(국교)를 회복하고자 함. 미사를 주의 만찬(Lord's Supper), 사제를 감독(Pastor), 제단을 주의 만찬상(Holy Table)으로 바꿈.
- **칼뱅** – 츠빙글리와 루터의 중간쯤에서 믿음과 실천을 성경적 원천, 곧 원시 그리스도교의 본래적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환원시키려고 함.
-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의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가톨릭 전통 반대, 교회의 본래성 추구,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 회복, 국교와 교구제도 등을 추구함.
-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이 환원주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에 반대하는 분리주의자들(환원주의자들)을 중형 또는 사형으로 다스림.



독일 Eifel의 재세례인 부인,  
마리아 반 몬주를 익사시키는 장면

Maria van Monjou. 1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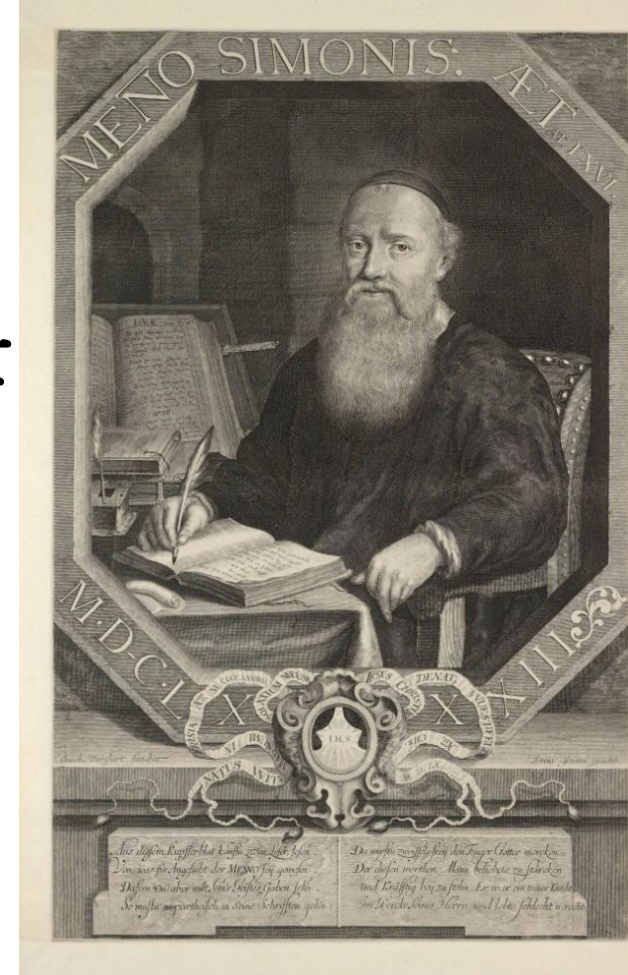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귀족 부인 재세례인 마리아 반  
베쿰과 올케 우르술라를 화형시키는 장면

Maria van Beckum, en Ursel, haers Broeders Wif. 1544.

시의회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재침례파들. **츠빙글리와 칼뱅은** 이들을 용납치 않았다. **츠빙글리, 칼뱅, 루터는 국가종교의 틀에** 갇혀 있었고, 국가 또는 시의회는 주류 이외의 신앙운동을 사형으로 다스렸다. 가톨릭 뿐 아니라, 국가와 시의회 교회였던 **개신교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박해사례: 재침례파, 뮌스터공동체, 청교도).



카톨릭 사제에서  
재침례인으로 개종한  
**메노 시몬스**. 그의  
이름을 딴 재침례인의 한  
파가 Mennonites이다.  
재침례신앙을 고백하는  
교단으로는 메노나이트  
외에도 Hutterites,  
Brethren, Amish,  
Quakers 등이 있다.



**츠빙글리와 칼뱅**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시의회**는 이들을 익사(침례를 조롱할 목적),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성속 분리 평화주의자들이자 무저항주의자들  
이었던 재침례인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다.

#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 **헨리8세** -1509-1547.1.28 재위. 1534년 **수장령** 발표.
- **에드워드 6세** - 1547-1553년 재위, 미사와 가톨릭 의식 폐지, 아이콘과 성상 제거, 설교 장려, 영어성경 사용 권장, 토머스 크랜머의 〈기도서〉(1549) 승인.
- **메리 튜더** - 1553-1558년 재위. 300여명의 개신교인들을 화형에 처함으로써 “**피의 메리**”(Bloody Mary)라 불림. 난소암으로 사망.
- **엘리자베스 1세** - 1558-1603.3.24 재위. 44년간 통치 후 70세에 사망. 1559년 **종교타협(가톨릭 Orders와 개신교 Confession of Faith의 혼합으로 영국교회 탄생)**. 새로운 〈기도서〉 승인. 청교도 및 분리주의자들 탄압.

#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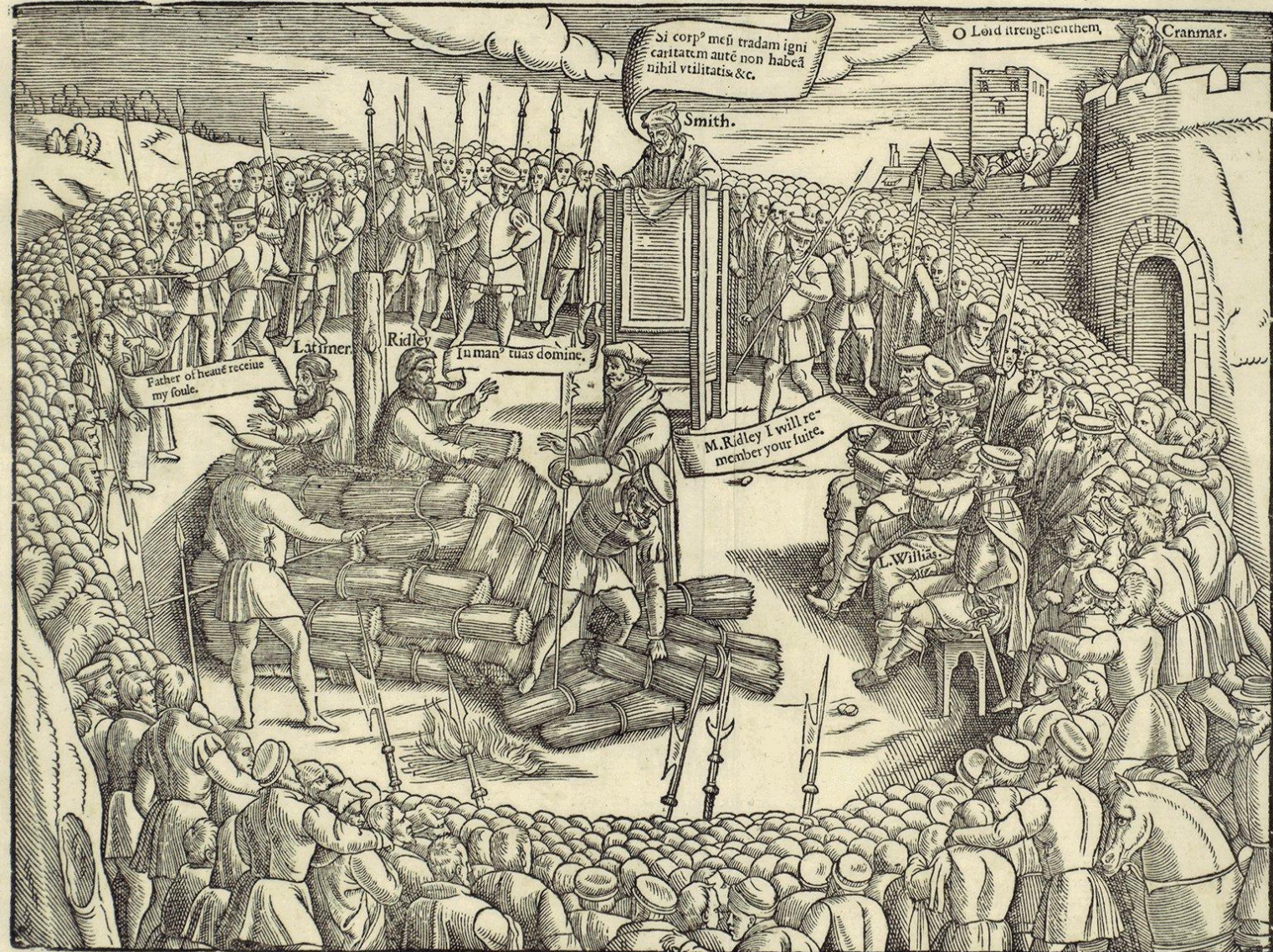
캔터베리 대주교  
신학박사 토마스  
크랜머가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  
(1556년 옥스포드).  
그는 여러 번  
배교하고 번복할  
때 서명했던 손을  
가장 먼저 불 속에  
넣었다.



#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니콜라스 리들리 주교와  
휴 래티머 신부가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1555년  
옥스포드). 불길에 치솟자  
래티머가 주교 리들리에게  
말하였다. “리들리 주교님,  
남자답게 처신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촛불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그 불을  
절코 끌 수 없을 것입니다.”

A table describing the burning of Bishop Ridley and Father Latimer at Oxford, D. Smith there preaching at the time of their martirdome.



#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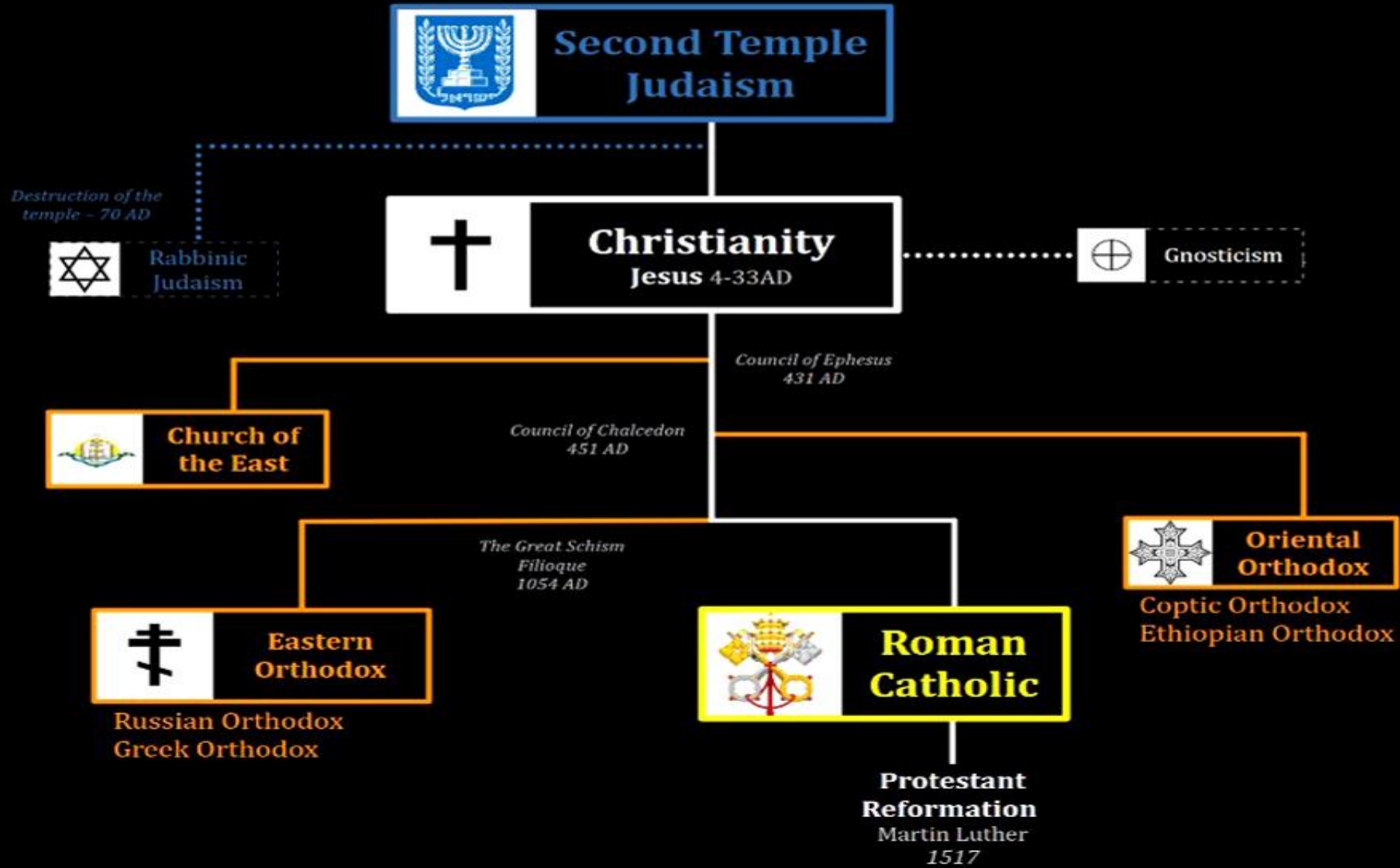
존 후퍼가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  
(1555년 2월 9일,  
글로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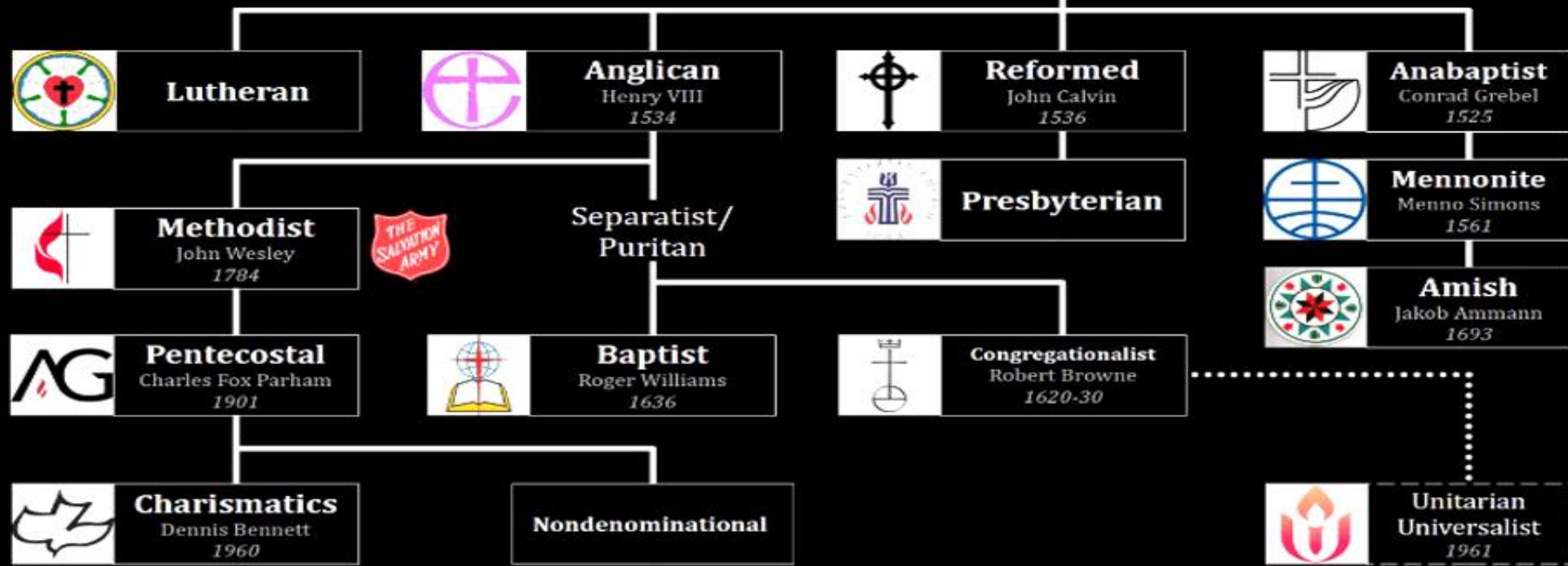
# 엘리자베스 1세(영국교회)의 청교도 박해 및 청교도 미국 이주

- 1560년부터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 영국교회로부터 60년간 탄압을 받다가 1620년에 미국으로 이주(102명), 1630년(400명+), 1640년(2만명).
- 인위적 예배와 고안물로부터 해방된 본래적 단순함이 회복된 원시교회(회중교회)를 추구.
- 교회와 사회의 법이 성경(모세율법에 큰 비중을 둠)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성경적 공화국 New England(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6개 주로 이루어진 지역)를 건설코자 함. 율법적 자만심으로 이어짐. \*신약성경교회와 구분 됨.
- 종교의 자유로 미국에서 신흥 교파들 발흥 - 1791년 12월 15일에 채택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국교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Denomination Family Tree



**Protestant Reformation**  
Martin Luther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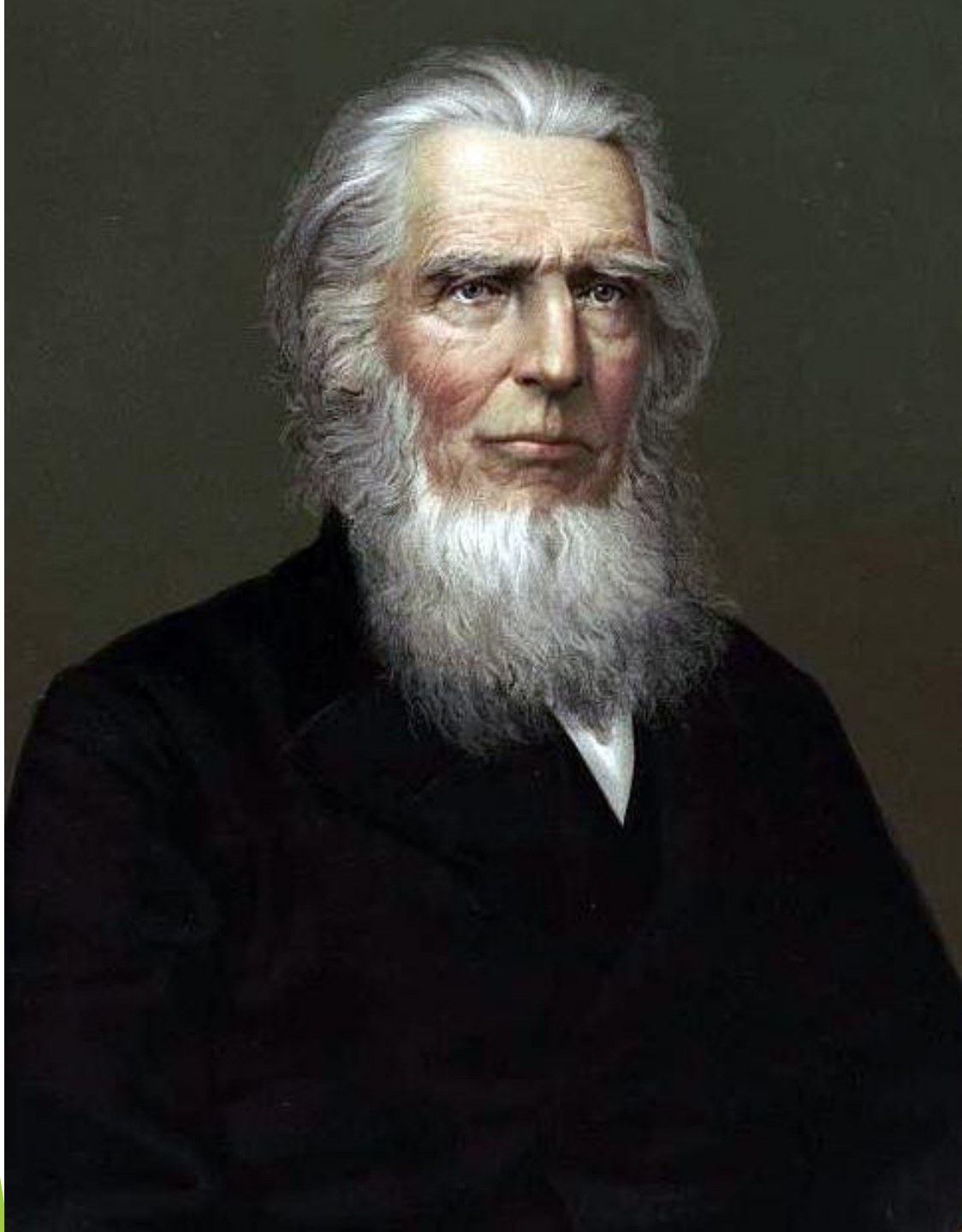
**Second Great Awakening**  
1790-1840



# 그리스도교 분열과 교단세력화

- **삼위일체와 단일신론의 경쟁과 분열.** 325년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니케아신조'를 시작으로 다수의 삼위일체 신조들 양산.
- **테오도시우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존했던 392년 그리스도교가 제국종교가 되면서 예전신학, 봉헌(제사)신학, 성체신학이 급격히 발전.**
- 개교회 목양자와 감독들이었던 **장로들이 사제로 둔갑되어 계급화** 됨(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혹은 총대주교).
- 박해시대가 끝난 4세기 초 이후 **금욕과 고행을 통한 개인경건과 신비주의 및 수도원운동**으로 이어지는 **암흑시대**란 터널을 통과.
-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성경을 모국어로 읽게 된 개신교회**들은 **일치보다는 진리와 순수성에 경도되어 교파들을 양산.**

- 교파별로 성경해석에 따른 신조(교리, 신앙고백서)들을 쏟아내면서 자기 울타리를 강화.
- 17세기 이후 신비주의 및 경건주의운동이 나타남.
- 유럽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신대륙으로 진출하여 교파교회들을 이식.
- 18세기에 대각성운동 시기에 옛 빛파와 새 빛파, 구학과와 신학과 등으로 분열. 기적, 동정녀 탄생, 부활 등을 부인하는 계몽주의, 이신론 등장.
- 19세기에 미국산 교파들 다수 탄생. 세속주의 곧 무신론, 진화론, 공리주의, 실용주의 등장.
- 20세기에 합리주의 영향으로 모든 교단들에서 성경관을 중심으로 근본주의(축자영감설), 복음주의(개념영감설), 진보주의(신앙고백설)로 분열.



# Ad Fontes

... BACK TO THE BASICS ...

**To the Sources:  
근원으로 돌아가자!**

- 르네상스시대 -

**To Restore the New Testament  
Order of Things!**

**신약의 믿음과 실천을 회복하자!**

- 알렉산더 캠벨 -

**알렉산더 캠펬 대對 장 칼뱅**

**Alexander Campbell versus John Calvin**

#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 알렉산더 캠벨

- 신약성경교회 회복
- 예배의 단순성, 유무악기
- 그리스도 중심성
- 매주 간소한 주의 만찬

## 장 칼뱅

- 신약성경교회 회복
- 예배의 단순성, 무악기(On Ps. lxxi. 22; On Ps. lxxxix. 3; On Ps. xcii. 1)
- 그리스도 중심성
- 매주 간소한 주의 만찬 (Institutes 4.10.19)

## 장 칼뱅의 개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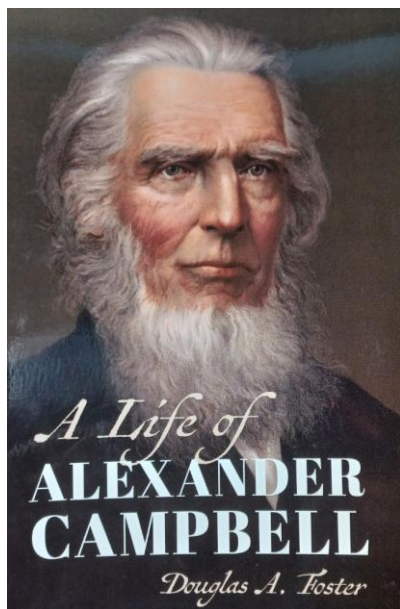
- 첫 번째는 말씀의 중심성이다. 옛 언약 예배와 새 언약 예배의 차이점은 **낡은 것은 복잡하고 새로운 것은 단순하다.**
- 두 번째는 예배의 단순성이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공적 예배의 단순성은 영광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높인다.
- **To return to the simplicity of the early Christians.**
- **Simply restoring the use of music sanctioned by the Bible and followed by the ancient church.**
- **the Eucharist with “great simplicity” (Institutes 4.10.19).**

## 장 칼뱅의 개혁의 특징

- 구약의 악기사용은 율법의 훈련과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On Ps. lxxi. 22).
- 복음의 맑은 빛이 율법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더 단순한 형태로 섬겨야 하므로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명한 것을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이다(On Ps. lxxi. 22).
- 구약 아래 있는 그의 백성과 신약 아래 있는 그의 백성 사이에 차이점이 관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교회가 전성기에 이른 지금, 지나간 경륜의 시대의 그림자를 소개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묻기 위한 것일 뿐이다(On Ps. xcii. 1).

#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의 특징

- 자연, 신화, 여러 종교 = 별빛
  - 모세와 구약 = 달빛
  - 예수님과 신약 = 햇빛



- 19세기 종교개혁가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1866)은 인류시대를 '별빛 시대' (=족장시대), '달빛 시대' (=모세시대), '새벽빛 시대' (=세례 요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태양빛 시대' (=그리스도교)로 구별 함.

##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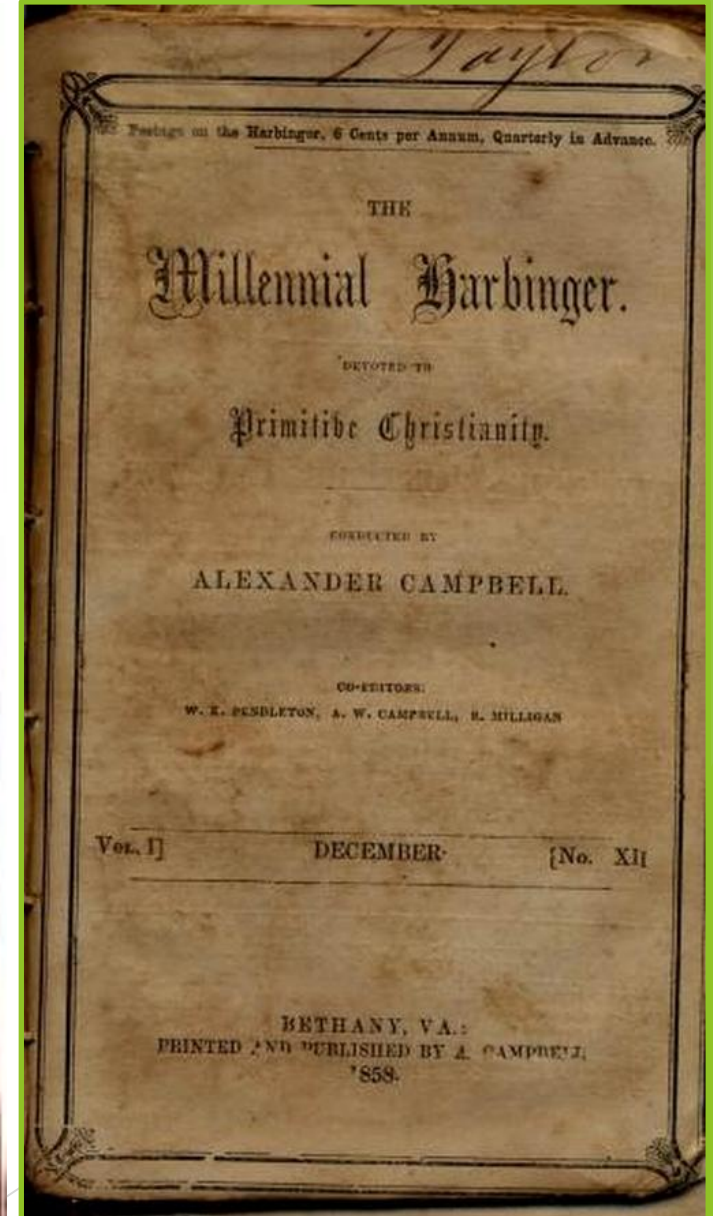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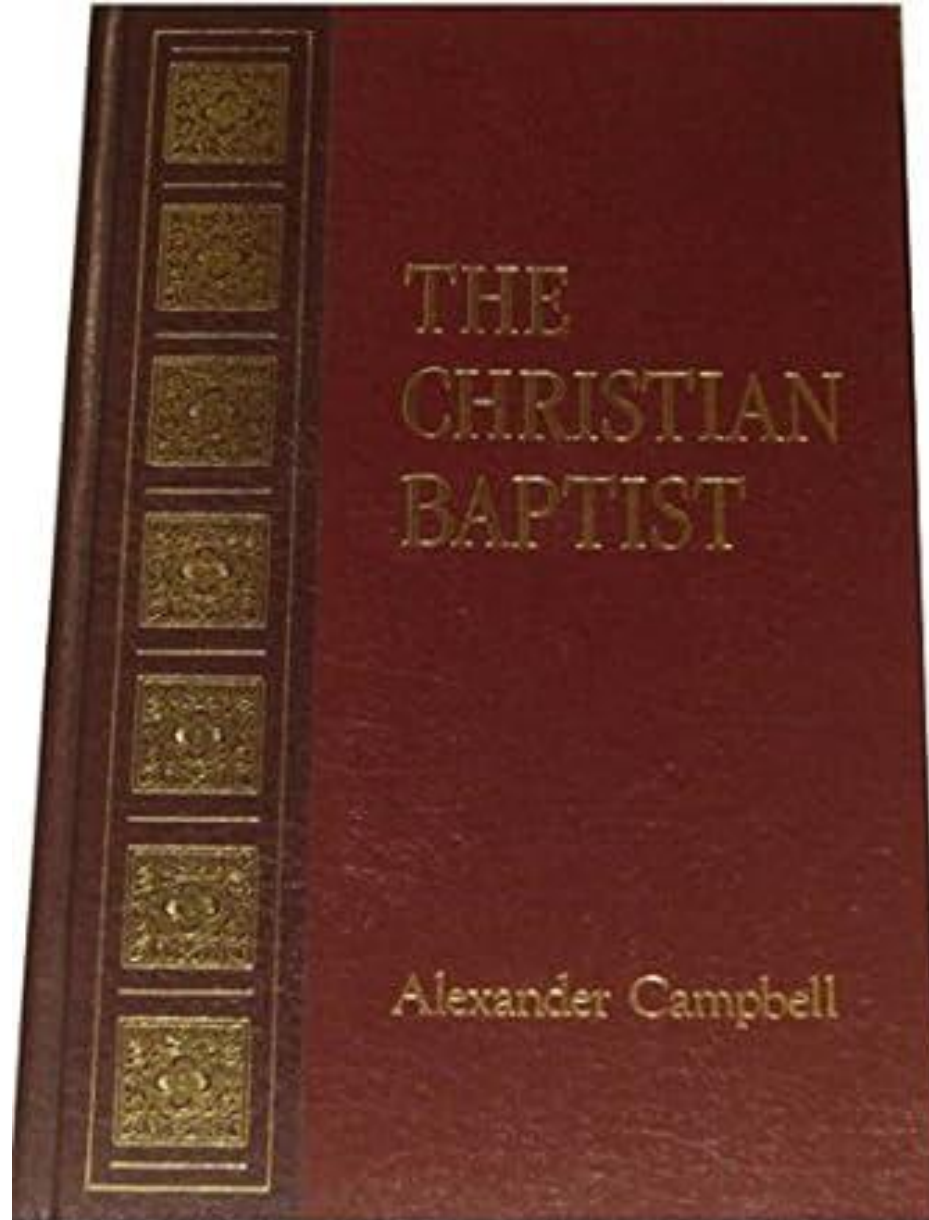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율법에 관한 설교**, 1816년 9월 1일, 28세 때)
- ‘**옛 질서(직제)들의 회복**’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이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침. <Christian Baptist, 1823-30>

알렉산더 캠벨  
〈그리스도인  
침례자〉

(Christian Baptist,  
1823-30)

〈새천년시대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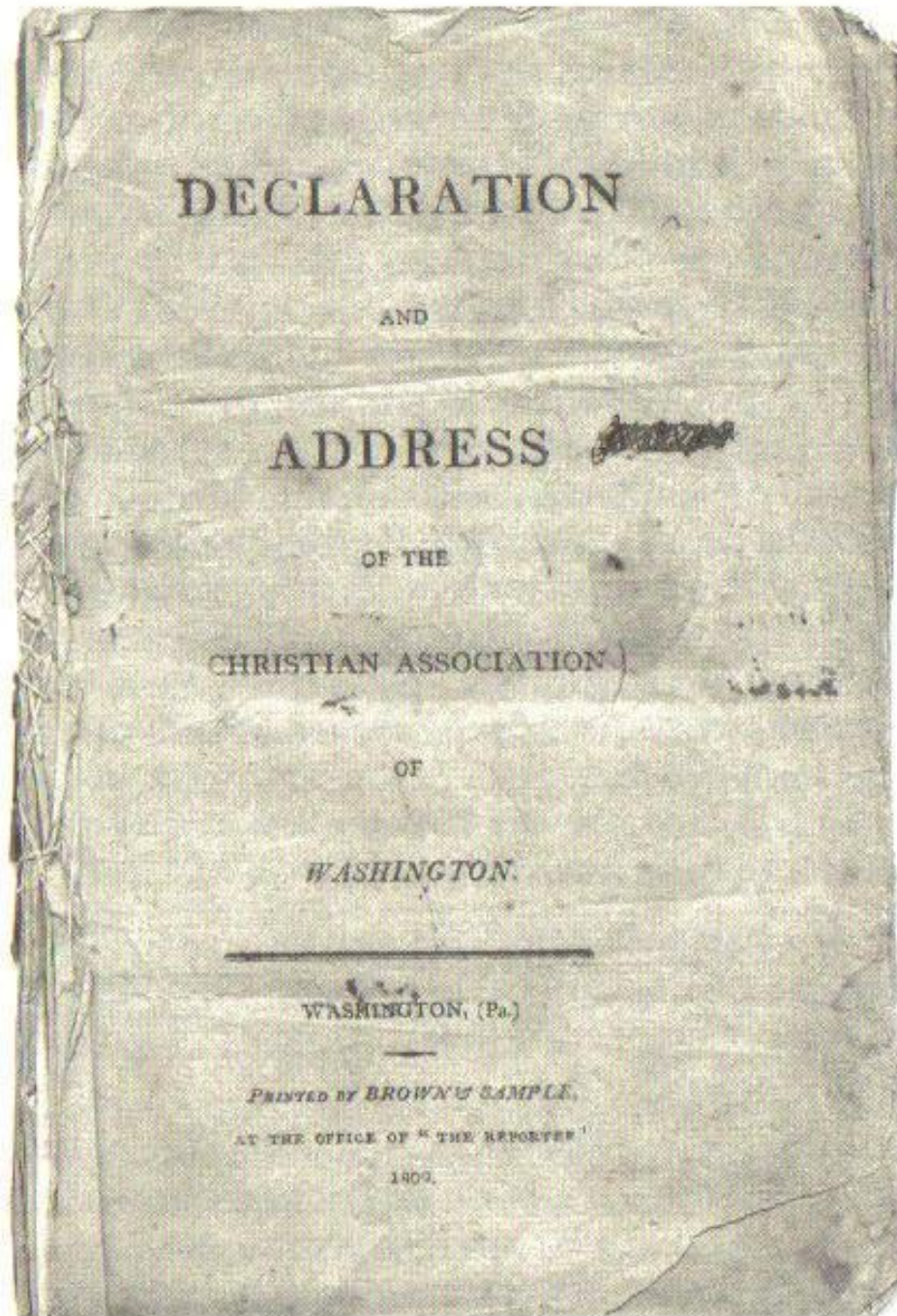
(Millennial  
Harbinger, 1830-70)



##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가 아닌 것들로서는 결코 “믿음의 조항”이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제3명제).
- **둘째**, 신구약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통전적인 계시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경이 신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제4명제).

**토마스 캠벨**  
**〈선언과 제언〉**  
**(Declaration &**  
**Address,**  
**Washington PA,**  
**1809)**



##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 셋째, “신약성경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제5명제).
- 넷째,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제6명제).

## P. H. 웰시머의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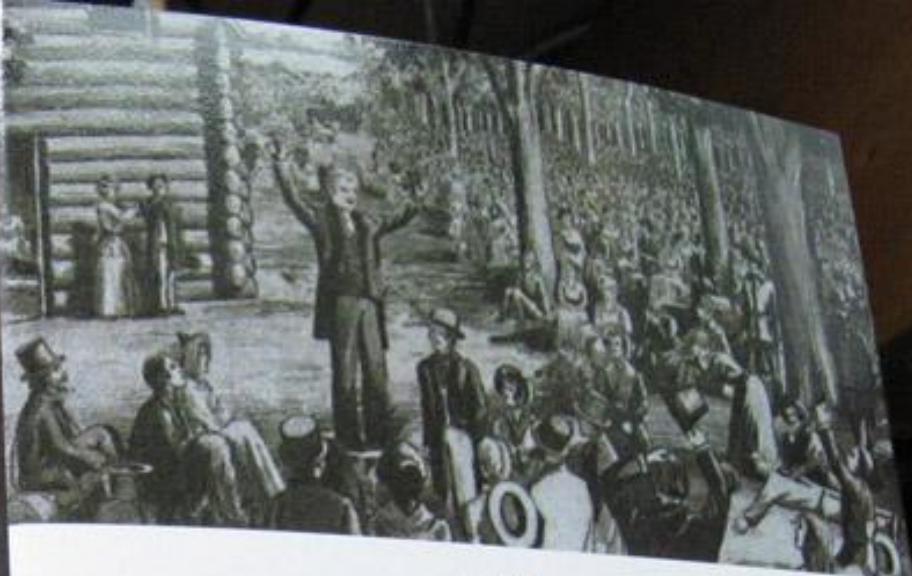
-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구약은 유대인을,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구약의 계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다시 제정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필 하워드 웰시머**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n.d.)**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By P. H. WELSHIMER



#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 편집자

다임러스 A. 캠프벨  
폴 W. 캠프벨  
앤서니 L. 워렌  
디. 뉴튼 윌리엄스

#### 후원기관

그리스도의 교회들 역사학회  
국제성서학회(ISA)

#### 한국어판 총괄편집자

정남수  
조영호  
김진희  
박종규

#### 출판총괄 후원기관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대한기독교서회

#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 알렉산더 캠벨

- 신자의 침례
- 주의 만찬의 상징설, 기념설,
- 구원론: 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를 구원의 과정으로 봄, Five-Finger Exercise
- 교회정치: 개교회주의, 장로회(임기제)

## 장 칼뱅

- 유아 세례
- 주의 만찬의 영적 임재설
- 구원론: 택한 자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의 조명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
- 교회정치: 국가교회주의, 장로회(임기제)

#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 알렉산더 캠벨

- 신자의 침례 - 신앙 양심에 따라 복음의 부름에 응답
- 홍해 도하를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로 봄

- 침례 -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남녀노소, 구원의 표
- 교회의 구성 -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남녀노소, 차별 없음

## 장 칼뱅

- 유아 세례 - 국가교회제도, \*\*\*예정론과 선택론에 모순
- 할례를 세례의 모형과 그림자로 봄

- 할례 - 출생 8일째 날 남자 아이에게만, 언약의 표
- 이스라엘의 구성 - '계명의 아들들', 곧 13세 때 성인식을 마친 남자, 성인 남성으로 제한

#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 알렉산더 캠벨

- 침례의 방법 -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
- 침례의 상징 - 죽음과 부활
- 침례의 대상 -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
- 침례의 목적 - 죄 사함, 구원, 성령의 내주 동거를 위해서
- 강조점 - 개인의 신앙 양심

## 장 칼뱅

- 유아세례의 방법 -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뿌림
- 세례의 상징 - 죽음과 부활
- 세례의 대상 - 유아(보호자가 신앙고백), 신앙을 고백한 성인
- 세례의 목적 -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입교를 위해서
- 강조점 -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은총으로 베푸심

## 최덕성 박사(브니엘 신학교 총장)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

그리스어 ‘뱁티조’ 또는 ‘뱁티스마’는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리거나, 염색하거나, 발목 깊이의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침례교 신자들이 이해하는 침례는 잠수 예식, 곧 잠례(潛禮)를 의미한다. ‘뱁티스마’ 또는 ‘뱁티조’는 한국말로 ‘잠례’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례 또는 침례가 아니라 적셔서 씻는 형태를 의미하는 우리말 ‘세례’로 번역함이 바람직하다.

# 최덕성 박사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고전 10: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골 2:12)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벧전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 최덕성 박사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

침례를 설명하는 이들 성구들에서 “죽으심”,  
“장사”, “구름과 바다”, “일으키심”,  
“부활”이란 단어들이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리거나, 염색하거나,  
밭목 깊이의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연상시키는가, 아니면 침수를 연상시키는가?

-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정교회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침수례 (baptisma)를 행한다. 정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완전히 물 속에 담근다. 유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침수례를 행한다.
- **Liddell & Scott 고전 그리스어 사전**은 baptizo를 “물속에 담그다, 침수하다”로 정의하며, “뿌리다” 또는 “염색하다”는 의미는 삭제되었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Strong's Concordance**와 **BDAG 사전**도 baptizo를 “immerse, submerge”로 정의하며, **\*\*뿌리는 행위는 다른 단어(예: rhantizo)\*\*로 표현된다.**
- **“baptize”와 “baptisma”는 고대 헬라어와 성경에서 일관되게 “침수”를 의미하며,** 우슬초로 피를 뿌리거나 염색하는 행위는 다른 단어와 문맥에서 사용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비침수적 해석은 상징적 또는 비유적 해석에 가까우며, 언어학적·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eXUw8qLwxcQ>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https://www.youtube.com/shorts/rq8S3GiC0pU>



<https://www.youtube.com/shorts/NHz4JN6rij0>



<https://www.youtube.com/shorts/hZ3jXbEDEKM>

아미쉬: <https://www.youtube.com/watch?v=eXUw8qLwxcQ>

메노나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nGyV-jC3IqA>

정교회: <https://www.youtube.com/shorts/rq8S3GiC0pU>

정교회: <https://www.youtube.com/shorts/NHz4JN6rij0>

정교회: <https://www.youtube.com/shorts/hZ3jXbEDEKM>

## 최덕성 박사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 ‘뱍티조’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뱍티스마’를 실천하는 유대교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침수세례 (Tevilat)를 행한다. 침수세례의 특징은 물 속에 완전히 담그는데 있다. 머리칼 하나라도 물 속에 잠기지 않으면 그 침수세례는 무효가 된다.
- 다만 유대교인들의 침수세례나 손씻기 같은 것들은 죄 씻음이나 위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죄를 씻거나 불결한 것을 닦거나 씻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써 물속에 깊이 담그는 행위이다.

# 최덕성 박사의 침수 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 유대교의 침수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다.
- 첫째는 한번만 하는 개종침례로서 벌거벗고 한다. 물에 닿지 아니한 부분이 생기면 무효이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한 식기류 침례(Tevilat Keilim)도 마찬가지이다.
- 둘째는 반복되는 정결례도 동일하게 벌거벗고 한다. 요즘에는 헝거운 옷을 착용하거나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 침례에 가장 좋은 물은 흐르는 자연수이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을 때에는 저수지나 바닷물 또는 침례탕을 사용한다.

# 최덕성 박사의 침수 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2-3세기 그리스도교의 교회들은 **벌거벗고** 물 속에 들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 한 번씩 세 번 침수례를 행하였다. 벌거벗어야 했으므로 침례식은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이뤄졌고 장로(감독)가 벌거벗은 여성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어려우므로 교회마다 40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의 여성 집사들을 두게 되었다. **유대교의 개종침례식에서도** 개종자가 여성인 경우 랍비는 문밖에 있고, 3인의 여성이 랍비의 역할을 대신한다. **유대인들이나 2-3세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밧목에 차는 물 속에 들어가 세례 받기 위해서 알몸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 <사도전승>.



A prospective Orthodox convert, LaFianza, 34, is still waiting for the all-clear from the local rabbinical court affiliated with the Rabbinical Council of America so she and her family can immerse in the mikvah, or Jewish ritual bath, and formally become Jews.  
유대교의 침례는 알몸 상태로 물 속에 들어간다. 2-3세기경 그리스도교의 침례도 알몸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사도 전승>.

유대교의 침수례

<https://www.youtube.com/watch?v=RhNoBu13yI8>

# WHAT IS A MIKVEH?

유대인 미크베(침례탕)란  
무엇인가?

# 참고: 칼뱅주의

## TULIP 교리

-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 튠립 교리

- 완전 타락
- 무조건적 선택
- 제한 구속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 성도들의 전인

**참고: 장 칼뱅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기독교강요〉에 따르면**  
**‘Only for the Elect’**

- 성경은 선택된 자에게만 특별 계시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복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믿음과 회개는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은 오직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구원은 오직 선택된 자만(Only for the Elect)을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선택된 자가 아니면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다

##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를 세례의 예표 곧 모형과 그림자로 보는 이들이 있으나 신약 성경은 노아 시대의 홍수(벧전 3:20-21)와 홍해에서의 구원(계 15:2-4; 고전 10:1-4)을 침례의 예표로 말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는(into) 의식으로 말하고 있다(롬 6:3-5)
- **침례/세례**가 원죄를 씻는 의식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있으나 할례는 이스라엘과 종교(유대교)가 시작된 출애굽 때보다 최소 430년에서 645년이나 먼저 시작되었다.
- 유대교인들은 원죄 개념을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할례는 원죄를 씻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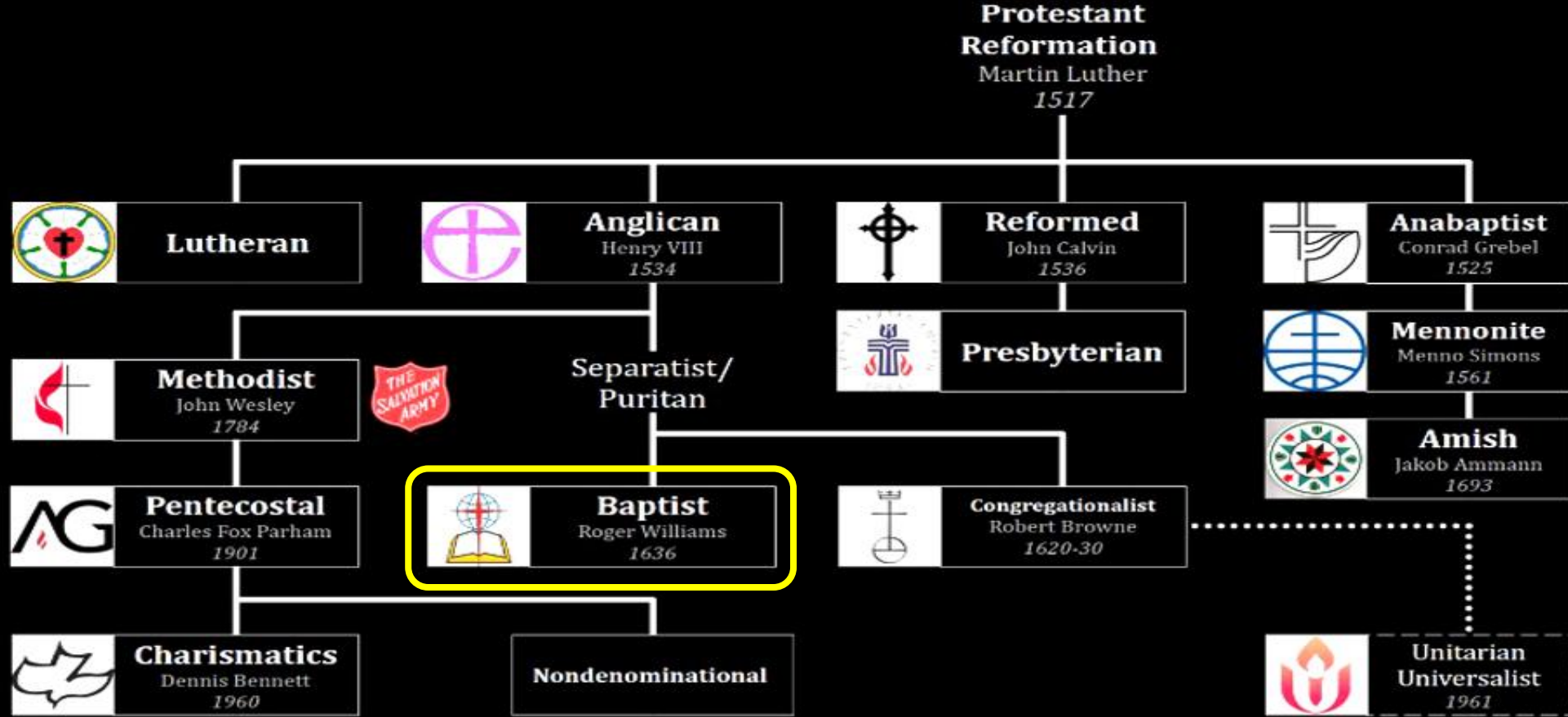
- **할례**는 출생 8일째 날에 남자 아이, 문안의 객(남자), 노예(남자)에게만 행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문자적 언약의 표시**이다. 할례 받은 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표시이다. 반면에
- **침례/세례**는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남녀노소가 행하며, 영적 구원의 표시이다(벧전 3:20-21).
-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남자에 한함) 뿐 아니라, 추가로 벌거벗고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는 율법의 명령을 따라 받지만, **침례**는 자신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 받는다.
- **교회(영적 이스라엘)**는 믿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남녀노소로 구성되며, 민족색깔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 반면에
- **민족종교인 유대교 이스라엘**은 '계명의 아들들', 곧 13세 때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성인 남자들로 구성된다.

유대인들의 할례의식 동영상  
Brit Milah\_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영국 침례교회는 17세기 초에 존 스마이  
스(John Smyth)와 토마스 헬위즈  
(Thomas Helwys)의 분리주의운동으로,  
미국 침례교회는 로저 윌리엄즈(Roger  
Williams)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Second Great Awakening**  
1790-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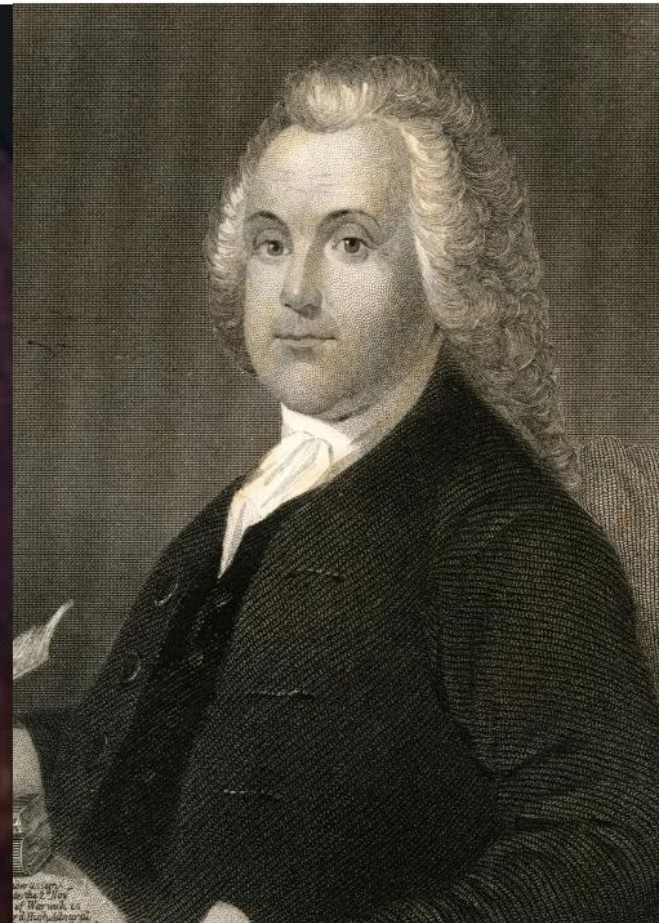
# 침례교 목회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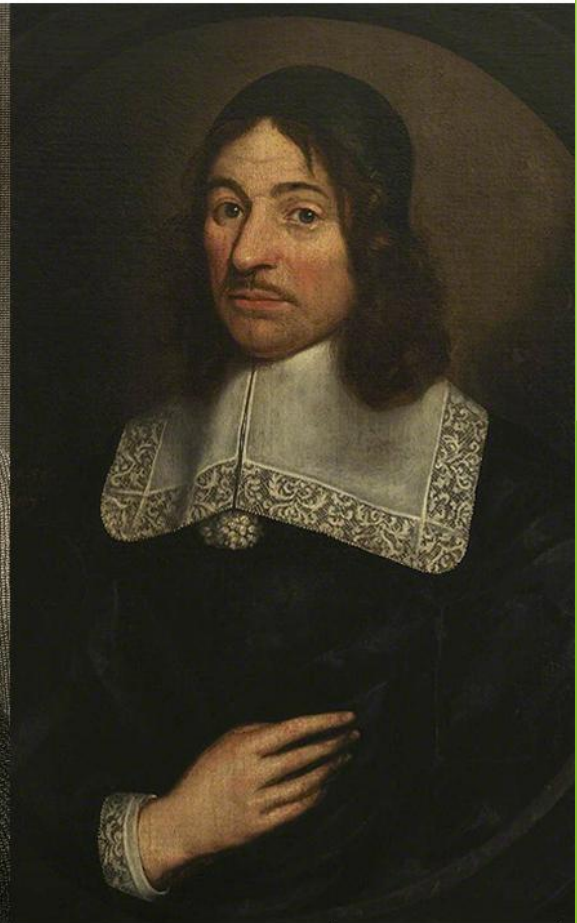
John Smyth(c.1554-c.1612)  
전 영국 성공회 사제  
1608년 암스테르담으로 망명  
일반 침례교회 설립



Thomas Helwys  
(c.1575-c.1616)  
변호사, 목사, 존 스미스와  
함께 일반 침례교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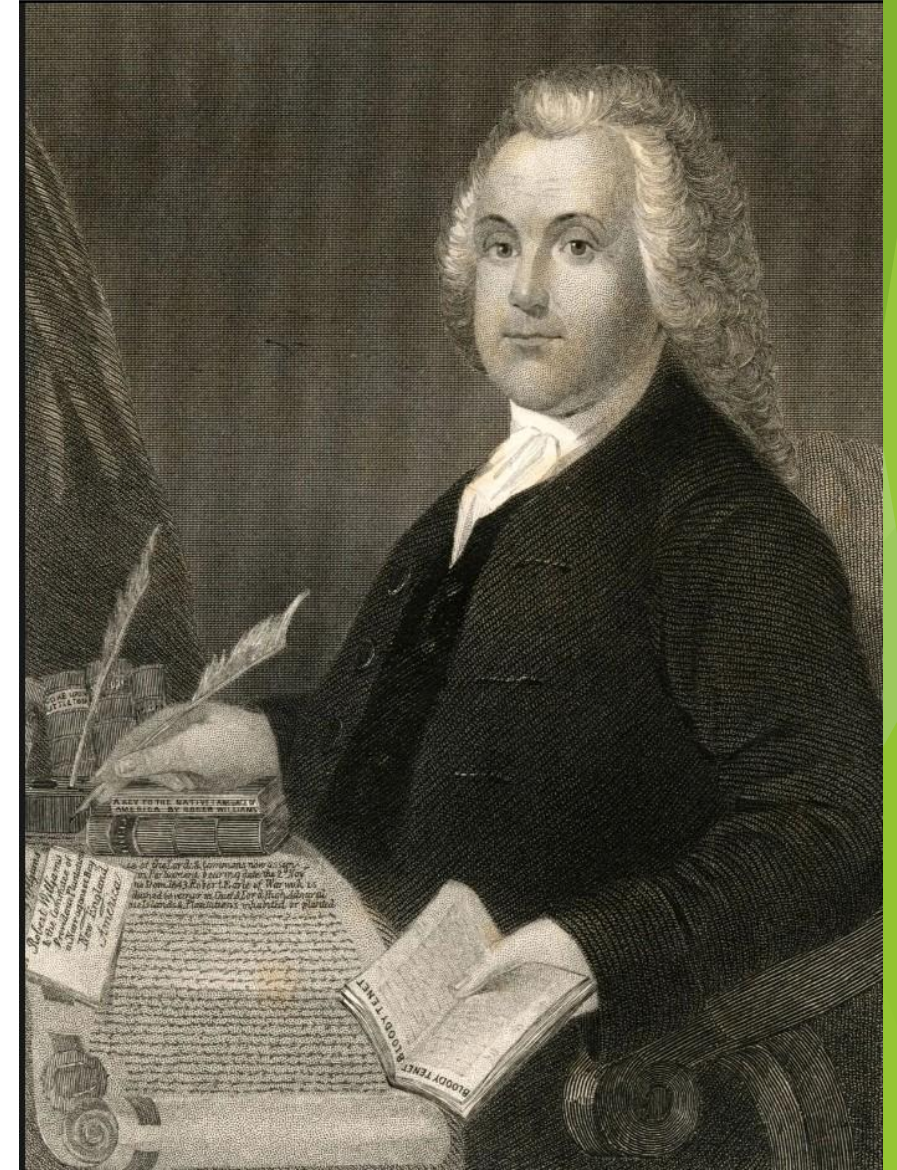


Roger Williams(c.1603-1683)  
1636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식민지 설립. 1638년 미국에  
최초 침례교회인 제일 교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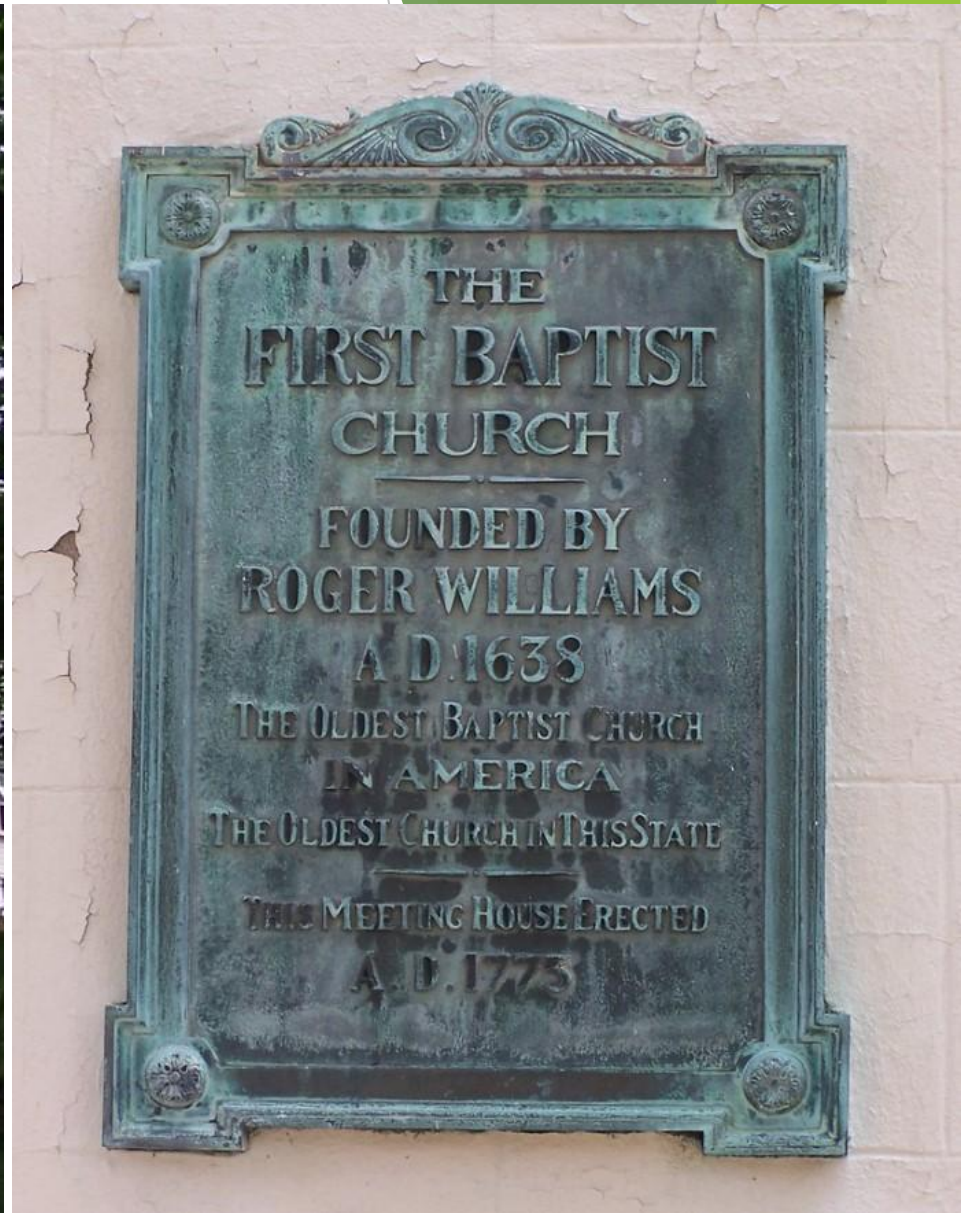
William Kiffin(1616-1701)  
런던에 개척한 침례교회에서  
52년 목회. 존 스펄즈버리와  
함께 특수침례교회 설립

# First Baptist Church(1638) in Providence Plantations, Rhode Island by Roger Willi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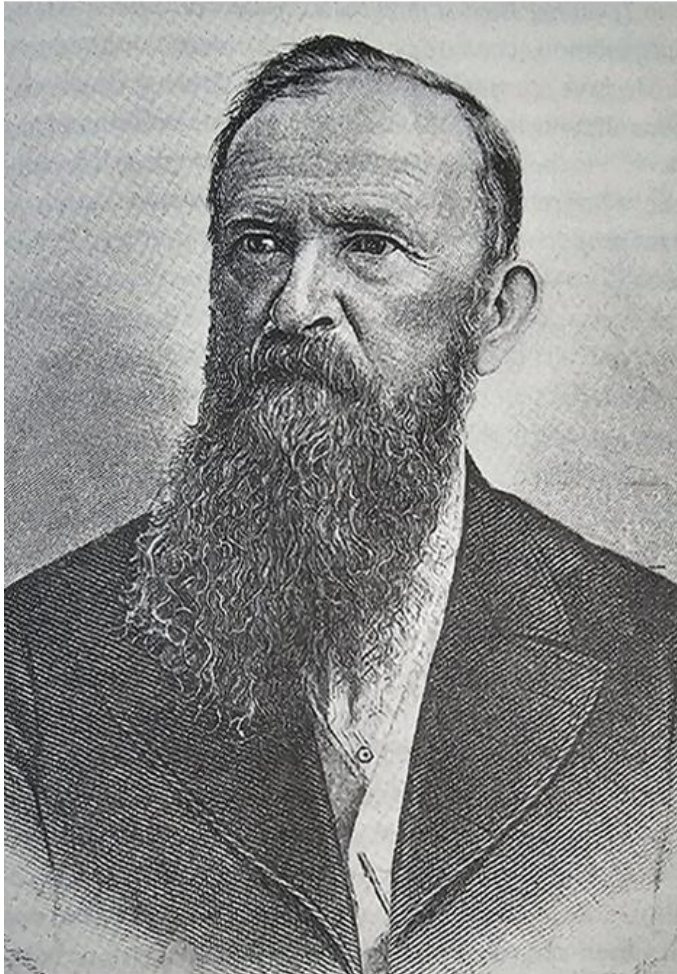




# 일반침례교회, 특수침례교회, 침례교세계연맹

- ▶ **일반침례교회들** : 존 스미스, 토마스 헬위즈; 일반 속죄설; 신자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중앙집권적; 침수례; 세속 정부에 적대적; 맹세와 무기 사용 반대; 공무원을 회원으로 불인정; 성령의 감동감화에 따른 즉흥적 예배 존중.
- ▶ **특수침례교회들** : 존 스피لز버리(John Spilsbury, 1593-1668), 윌리엄 키피(William Kiffin, 1616-1701); 제한 속죄설; 신자는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개교회주의; 유아세례에 반대; 신자 침례 시행; 세속 정부에 우호적; 맹세와 무기 사용 허용; 공무원을 회원으로 인정; 형식적 예배 중시.
- ▶ **침례교세계연맹(BWA, Baptist World Alliance, 1905, 영국)** : 칼뱅주의 쇠퇴, 개방 만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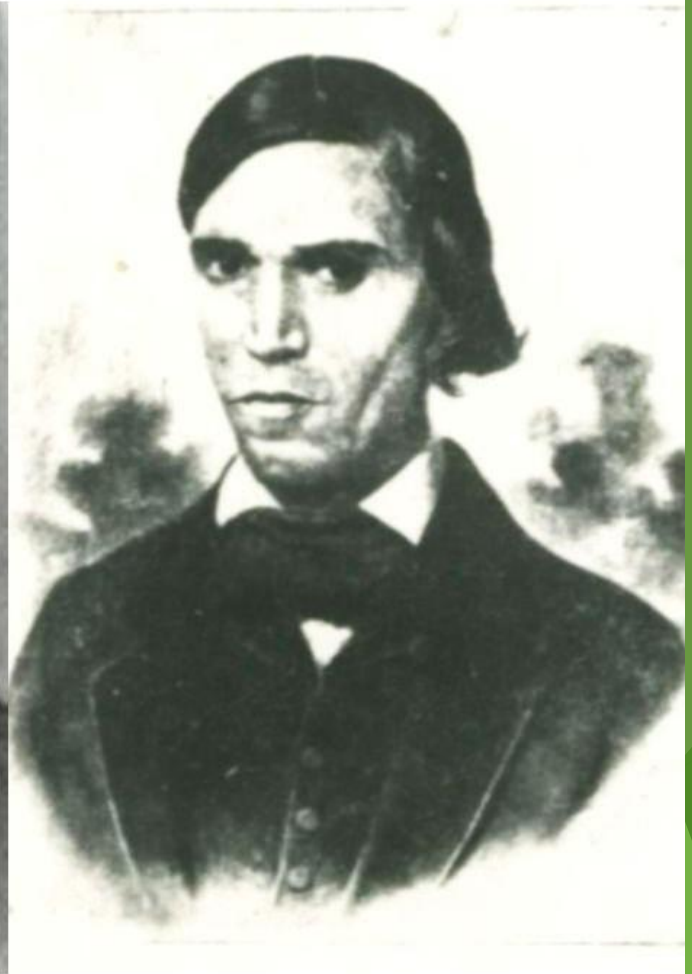
# 침례교 지계석주의 3인방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  
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  
목사, 출판인, 토론가  
The Tennessee Baptist 발행



제임스 매디슨 펜들턴  
James Madison Pendleton  
1811-1891  
목사, 교육자, 신학자  
An Old Landmark Reset 저자



아모스 쿠퍼 데이턴  
Amos Cooper Dayton  
1813-1865  
의사(치과개업), 목사  
그레이브스에게 영향 받음

# 침례교회들에서의 지계석주의(Landmarkism) 추이(推移)

- 지계석주의(Landmarkism)란 말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잠 22:28)에서 유래하였다. 지계석주의자들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침례교의 신앙체계로 받아들였다.

- 지계석주의는 침례교회 전승설(successionism)에 따라 침례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왕국과 동일 연속선상에 있고, 모든 세대에 걸쳐 부단한 역사적 전승(침례교회의 침수례만 인정, 폐쇄 만찬 등)으로 존재해 왔다는 ‘승리주의’(triumphalism) 주장이다.

## 침례교회들에서의 지계석주의(Landmarkism) 추이(推移)

- 100여년 전까지는 **침례교회 전승설(Baptist Church Successionism)**이 영국과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통설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이론으로서는 이미 **폐기된 학설**이다.      출발: 특수성 → 귀착: 보편성
- **침례교회 전승설에 따른 지계석주의(landmarkism)나 ‘승리주의’(triumphalism)**는 오늘날 더 이상 주장되지 않는다.

##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승리주의(triumphalism)는 특정 교리, 문화, 사회체제가 모든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거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나 신념을 말한다. 승리주의는 연합을 꾀하는 교리가 아니라, 당파들의 특정 태도들이나 신념체계들을 특정 짓는 말이다.
- ‘승리주의’(triumphalism)와 비슷한 표현으로 배타주의(Exclusivism)가 있다. 승리주의가 좁은 파당 간의 개념인 반면, 배타주의는 포용주의(Inclusivism) 및 다원주의(Pluralism)와 함께 쓰이는 넓은 종교 간의 개념이다.

##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승리주의**는 특정 교리나 주의(主義)가 절대적이란 식의 당파적 태도나 신념을 말하고, **배타주의**는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의 신념을 말한다.
- 그러나 이런 종교적 신념이 보수파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 **이런 신념은** 중도파나 진보파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만일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념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전략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승리주의나 배타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거나 신념체계를 힘써 전달하게 하는 **당파적 동력(partisan dynamics)**이다.
- 그런 당파적 동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집단이 진보파이고, 보수파는 진보파만 못하다. 신념이나 신념체계(belief system)에 관한한 보수파도 문제이지만, 진보파일수록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만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가 중도파이거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크고 작은 종교집단들, 심지어 그것이 정통개혁주의이든지, 진보주의이든지, 또는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의 이단 종파들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될 때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 동력(dynamics)이 바로 이 승리주의나 배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어느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이든지 간에 승리주의나 배타주의 없이 집단을 제대로 형성한 사례는 없다.
-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일수록 발전이 더딘 이유는 그 집단을 이끄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반면에 배타주의 집단일수록 발전이 빠른 이유는 그 집단을 움직이는 동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승리주의나 배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단은 정상적이거나 건강한 집단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든 운동은 정(正)에 대한 반(反)으로 시작하여 합(合)으로 진화한다. 그렇더라도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내다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집단이 신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일은 집단 간의 상호발전에 유익하다.

## 스톤-캠벨운동권에서의 승리주의(triumphalism) 추이(推移)

- 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은 1870년대 이전까지 배타적이고 고립적이며 승리주의적인 선교정책들을 써왔다.
- 그러나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WBM)와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CMS)가 설립된 이후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창립멤버)에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들 선교단체들의 열린 회원제 수용은 1909년에 개최된 100주년 대회 때 진보와 보수가 분열된 양상을 표출하였다.

## 스톤-캠벨운동권에서의 승리주의(triumphalism) 추이(推移)

-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1940년대 중반부터 목사와 편집자들이 저술하던 역사로부터 학문적 훈련을 받은 역사가들이 저술하는 역사로 일대 전환이 일기 시작하였다.
- 그 결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역사기술은 스톤-캠벨 운동의 존재 이유였던 환원(복원)에 대한 배타적 집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승리주의(triumphalism)의 옛 형태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도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의 추이를 그대로 겪으면서 승리주의(triumphalism)의 형태들을 단념하였다.

참고: 제임스 멀치의 '온전한 승리주의'

-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시내티 주교인 존 퍼셀(John Baptist Purcell)과 펼친 1837년 토론에서 알렉산더 캠벨이 추적한 논쟁의 여러 방식 중 하나에서 영감을 받은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환원운동사>

-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1962)** 서문에서 스톤과 캠벨부자(父子)의 환원 운동은 권위와 의식을 존중하는 교권주의(high-church ecclesiasticism)와 배도를 무시한 다른 운동들의 계통 속에서 있었다며 전승설(successionism)을 주장하였다. 그 같은 운동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가톨릭과 정교회를 회피하고 “사도전통의 계승”(apostolic succession) 곧 신약성경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증언한 (때때로 박해를 받았던) 증인들이었다(\*침례교회들의 지계석주의 및 전승설과 비교\*).

- 그들 중에는 프리실리안파(Priscillians)와 보고밀파(Bogomils)가 있었고, 종교개혁이전시대에 카타리파(Cathari)와 왈도파(Waldenses)가 있었으며,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재침례파(Anabaptists)와 할데인(Haldane) 형제들이 시작한 스코틀랜드의 환원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멀치의 온전한 승리주의(triumphalism)의 관점에서 볼 때, 스톤-캠벨 운동은 이들 환원운동들의 정점에 선 계승자였다. 그러나 그 자체는 전적으로 환원운동의 참된 소명에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작금의 개혁’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녕코 또 다른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고 멀치는 기술하였다.

- **프리실리아누스**는 스페인 아빌라의 주교로서 ‘성경말씀에 따른 개혁’을 주장하다가 383년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글들과 가르침이 소각 당하여 남은 것이 거의 없지만, 그의 사망 후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투르의 주교 마르티노 등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소한 재판기록이 1886년에 발견됐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교회가 교권과 형식에 치우쳐 가는 것을 경고하여 성경연구와 성만찬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다. 프리실리안파(Priscillians)를 공박하기 위해서 주후 400년에 스페인 톨레도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 **보고밀파(Bogomils)**는 8-9세기에 성경연구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남은 기록은 대부분이 재판기록 뿐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레크의 그레고리(Gregory of Narek)라 불리었으며, 역시 무서운 핍박을 받아 죽었고, 세상은 이들을 **‘하나님의 벗’(Friends of God)**이라 불렀다. 이들은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우상을 반대하였다.
- **카타리파**는 9세기경 발칸반도와 그 주변 섬에서 형성되었고, 중세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흥하다가 14-15세기경 소멸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순결한 사람’(Katharoi)**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적이고 청빈적인 교회를 꿈꾸던 많은 개혁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 프랑스 리옹의 **발두스(Petrus Waldus, ?~1217)**는 청빈(淸貧)을 실천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pauperes Christi) 혹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Poor men of Lyon)이라 불렀으며, 주교의 탄압에 대항하였다. 그의 사상은 청빈과 더불어 교황권위의 부정, 연옥의 부정, 평신도에 의한 사죄(赦罪)의 인정, 죄에 빠진 사제가 거행한 미사의 성사성(聖事性) 등을 부정하였다. 그의 사상은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지로 확산되어 종교개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재침례자들은** 유아세례, 이단자에게 받은 세례, 박해 때 배교했던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 등을 부정하였고, 스스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believer's baptism)**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의 권위회복을 강조하였고,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을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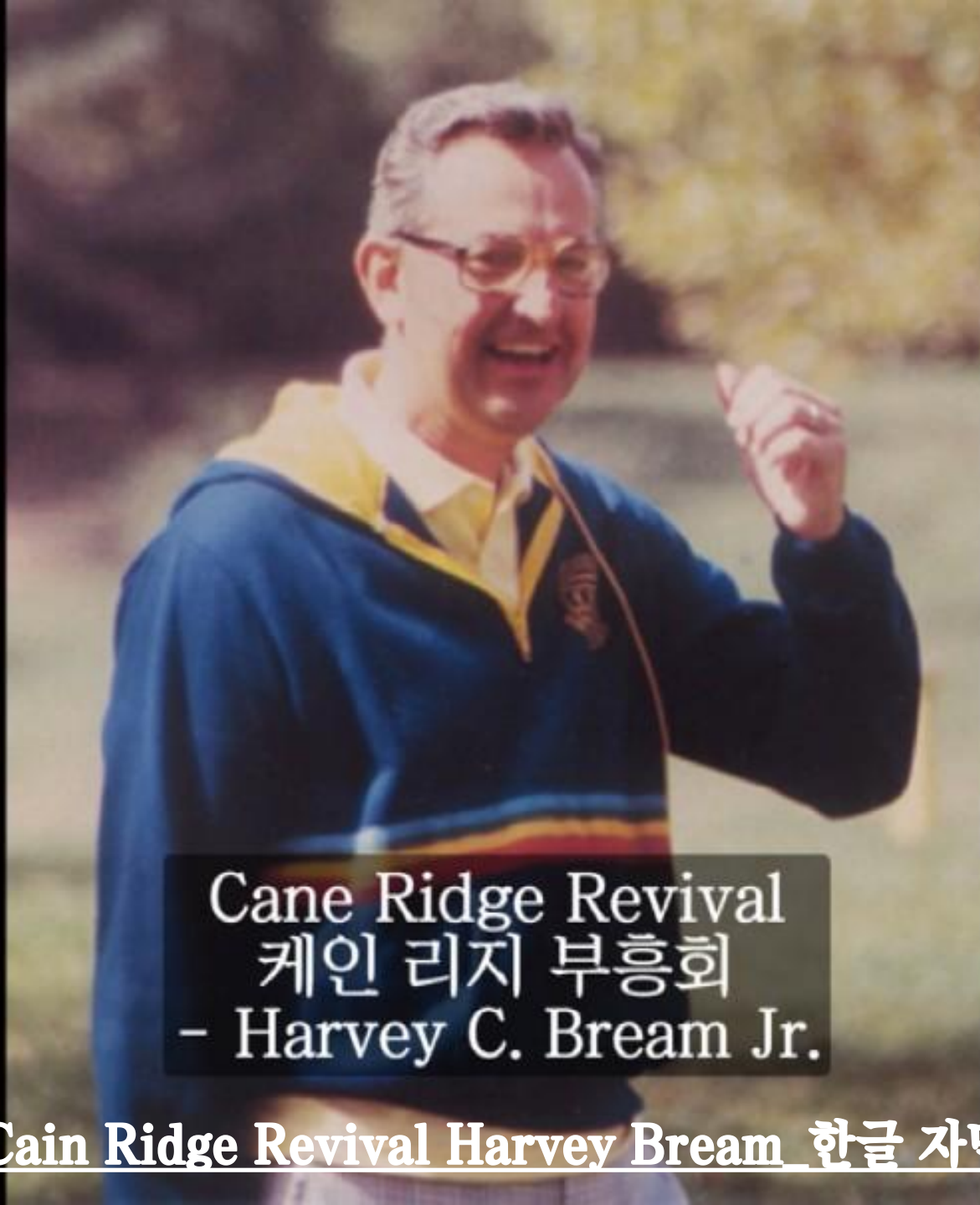


- **로버트 할데인(Robert Haldane/1764-1842)**은 스코틀랜드의 부흥목사로 할데인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형제 제임스 할데인(James Haldane/1768-1851)과 함께 스코틀랜드 교회를 탈퇴하였고, 인위적 가르침을 버리고 사도시대의 가르침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임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교회의 머리로 섬겼으며, 교회정치로는 개 교회가 다수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중주의를 주장하였고, 유아세례를 배제하고 침수세례를 베풀었으며,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거행하였다.

-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은 1720-40년대 사이에 미국의 영국식민주들에서 일어난 신앙부흥운동을 말한다. 이 부흥운동은 주로 칼뱅주의였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일부 성공회 등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을 이끈 주요 인물은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로서 성공회 사제였으며, 1739~40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야영집회들을 열어 설교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로서 회중교회 목사였으며, 학자이자 변증가였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고 설교하여 호응을 얻었다.

⚡ **특징: 유황불(Fire and Brimstone) 설교** ⚡

- 제2차 대각성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으로 알려진 부흥운동은 1790년대 뉴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제1차 대각성운동 때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대학과 신학교들이 세워졌고 선교협회들이 조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켄터키주에서도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야영집회 방식의 부흥운동이 발전했으며 19세기 내내 미국 개척지에 영향을 주었다. 켄터키주 부흥운동(the Kentucky revival)의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 Only Movement)을 펼친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이다.



Cane Ridge Revival  
케인 리지 부흥회  
- Harvey C. Bream Jr.

Cain Ridge Revival Harvey Bream 한글 자막

# TRAIL FIRE

---

Cane Ridge Revival

케인 리지 부흥회  
대니얼 노리스 (Daniel Norris)

<https://www.youtube.com/watch?v=2brK2AfXHeQ>

## 미국 침례교의 대표적 신앙고백들

- ▶ 침례교인들은 “신앙고백의 사람들”로 불렸지만, 신앙고백이 신조가 되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에 반대하였다.
- ▶ **필라델피아 신앙고백(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 1742년)** – 영국 특수침례교회들의 제2차 런던신앙고백(1677년)을 계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6년)에 영향을 받아 **칼뱅주의적 신앙**이 지배적이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의 특징**들: 성도의 견인, 신앙 양심의 자유(분리주의); 신약성경의 두 가지 의식(ordinances) 곧 침례와 주의 만찬(폐쇄만찬); 만인 사제; 회중정치.

- ▶ **뉴햄프셔 신앙고백(New Hampshire Confession of Faith, 1833년)** – 자유의지 침례교회; 아르미니우스주의; 온건한 칼뱅주의; 지계석주의(Landmarkism) 확산에 크게 기여.
- ▶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 1925년)** –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채택; 뉴햄프셔 신앙고백과 과학과 종교에 관한 진술(1923년)에 기초; **진화론 논쟁**이 발단.
- ▶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 1963년)** –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채택된 두 번째 신앙고백; **진보신학**이 발단;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1925판을 재조정; **온건한 칼뱅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내포; 지계석주의와 진화론과 자유주의 사상을 경계.

#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참고: 교회진흥원, <침례교 직분자 훈련총서>(요단)

## 'BAPTIST'로 본 침례교의 7가지 신앙

- **B** : Believer's Priesthood (신자의 제사장직/ 萬人사제)
- **A** : Autonomy of the Local Church(자치적 지역교회/ 회중정치)
- **P** : Primacy of Scripture (성경의 절대적 권위)
- **T** : True believers only in the Church(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 ‘BAPTIST’로 본 침례교의 7가지 신앙

- **I** : Individual Competency of the Soul(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영혼의 개별 능력)
- **S** :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교회와 국가의 분리)
- **T** : Two Ordinances (두 가지 거룩한 의식)
  - 1)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 2) 기념적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as Memorial)

##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 첫째, **신자의 제사장직**이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 둘째, **자치적 지역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령님께서 개 교회들을 인도하심으로 지역교회가 인사, 재정, 행정 등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지방회나 총회는 교제와 선교 등을 위한 협력모임으로 여긴다는 것.
- 셋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절대규범으로 삼는다는 것.

##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 넷째, **교회 내 참신자만의 회원권**은 교회의 회원권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헌금, 봉사 등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한다는 것.
- 다섯째,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성에 따라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섬김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 여섯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개인의 자율성의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조차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억압할 수 없으며, 교회 역시 국가권력을 이용해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 일곱 번째 **두 가지 거룩한 의식**은 신자의 침례와 기념적 주의 만찬 두 가지만 침례교회들의 의식으로 인정한다는 것.
- 침례교는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를 강조. 침례교는 유아세례(침례)를 베풀지 않는다.
- 침례교는 **침수례**를 행한다.
- 침례교는 침례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받는 것**이지,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스톤-캠벨 운동권에서는 대체로 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를 중생을 위한 믿음의 행위 혹은 중생의 과정으로 본다. 비교:** 수정/임신, 배아, 태아, 출산; 만남, 교제, 고백, 결혼).

#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 침례교가 침수례 베푸는 다섯 가지 목적

- 첫째, **중생한 성도의 신앙고백**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대체로 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를 중생을 위한 믿음의 행위 혹은 중생의 과정으로 본다. **비교:** 수정/임신, 배아, 태아, 출산; 만남, 교제, 고백, 결혼).
- 둘째,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따름**
- 넷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
- 다섯째,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함**

## 침례교의 주의 만찬의 빈도수

- 주의 만찬을 행하는 빈도수는 침례교회마다 다르다. 분기별로 한번 또는 두 번하는 교회도 있고, 매월 한 번 또는 드물지만 매주 하는 교회도 있다.
-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 개 교회는 주의 만찬을 누가 주재하고, 얼마나 자주하며,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일부 교회들은 만찬을 교회 회원(침례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수의 교회들은 “신앙과 질서가 같은” 다른 교회들의 회원들도 참여를 허락한다.

## 침례교회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

이를 일컬어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궁극 구원의 교리’**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Eternal Security of Believers)이라고 한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지속하는 한(限)에서 ‘성도의 견인’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

##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그레이브스는 “캠벨파는 침수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거둬나게 하지 않았으며, 성경적인 교회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침례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레이브스가 “캠벨파는…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거둬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

- 물세례를 받는 시간이나 목적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의 성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성구 속에  
“βαπτισθήτω... εἰς 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  
이란 문장이 있다. 이 부분을 ‘너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죄사함  
을 얻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로 해석하느냐가 전치사  
eis에 대한 문법적 해석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그레이브스가 “캠벨파는…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

- 대부분의 개역성경들과 언어학자들이 본문의 eis를 ‘~을 위  
해서’로 번역하고 있다. eis가 대격과 함께 쓰일 때는 목적의  
뜻으로 해석해야 문법적으로 옳다는 주장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침례교 학자들은 eis가 대격과 함께  
쓰일 때에 원인 또는 결과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때  
문에’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 한글 개역성경들 가운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말씀보존학회, 1994)이외에 다른 모든 성경들에서 전치사 eis를 ‘~을 위해서’로 번역하고 있다.
- 1974년 2월자 **〈환원선구자〉**(Restoration Herald)에 의하면, 무려 41개의 영어 성경이 eis를 ‘for’로 번역하고 있고, 14개의 다른 성경이 ‘unto’로, 27개의 또 다른 성경은 ‘in order that,’ ‘to have your sins forgiven’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 **사도행전 2장 38절의 eis를** 침례교의 몇몇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자들, 사전편찬자들, 성경 번역가들이 ‘~을 위해서’로 번역하고 있다.

# 사도행전 2장 38절의 eis + 대격을 for, unto, so that, in order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

## “βαπτισθήτω... εἰς 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

### Scriptural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King James Vers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American Standard Version** - "unto the remission of sins."

**New King James Vers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New International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Revised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 "so that your sins may be forgive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World English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sins."

**Bible in Basic English**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Good News Bible**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God's Word**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Young's Literal Translation** - "to remission of sins."

**Modern King James Version** - "to remission of sins."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English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 "to remission of sins."

**New English Translat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ew Living Translat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Today's English Version**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헬라이어 구문에서 eis+대격을 거의 모든 언어의 성경들에서 “위하여”(for, 목적)로 번역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한국어 성경들에서는 유일하게 말씀보존학회가 출판한 <한글킹>과 <표준킹>에서만 “인하여”(because of, 결과)로 번역함.

**The Douay-Rheims Bible** -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Hebrew Names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e Webster Bible** - "for the remission of sins."

**Wesley's New Testament** - "to the remission of sins."

**Third Millennium Bible** - "for the remission of sins."

**The Darby Translat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J. B. Philips Translation** - "so that you may have your sins forgiven."

**New American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mplifie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and release from your sins."

**Worldwide English Bible** - "Your wrong ways will be forgiven you."

**Weymouth Bible** - "with a view 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Revised King James New Testament** - "for the remission of sins."

**Modern Literal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Common Version New Testament**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Interlinear Greek New Testament** - "for remission of sins."

**Living Oracles** - "in order to the remission of sins."

**Montgomery New Testament** -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The Emphasized Bible** - "in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Covenant Edition New Testament** - "to cancel your sins."

**Christian Standar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비버(Beaver) 침례교 협의회는 **파문(破門)**은 캠벨이 당시 회원으로 있던 마호닝(Mahoning) 침례교 협의회가 “성경의 많은 교리를 믿지 않고 부인”했다고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 **“침례 없이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어떤 점에 대한 심사 없이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마음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침례는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는 가르침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개혁자들은 “교회에는 어떤 신조도 필요하지 않지만 성경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필요하다.”

##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1860년 그레이브스는 캠벨이 1812년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는 침례가 죄 사함과 심령에 중생을 가져온다는 개념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이제 침례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캠벨 씨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재판관으로서, 결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의 초기 목회자들이나 추종자들 중 누구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순한 샘에서 순수한 시냇물이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캠벨주의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지 않았고 침례를 베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 교파 전체가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 [영화: 알렉산더 캠벨의 초기 생애] [kccs.info/Wrestling with God\\_Video of 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http://kccs.info/Wrestling%20with%20God_Video%20of%20the%20Early%20Life%20of%20Alexander%20Campbell.mp4)

##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그레이브스는 선택(예정)된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와 거듭남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써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주어진다고 믿었던 칼뱅주의자였고, ‘신자의 침례’는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의 표징으로 보았다.
- 따라서 ‘신자의’에서 ‘신자’란 침례 받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며, ‘침례’란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입증하는 표를 말한다.

##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캠벨은 “은혜, 보혈, 믿음, 회개, 침례는 신성한 은혜의 사슬에서 다섯 가지 황금 고리를 구성하며,” 모두 침례 행위에서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 캠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협력)을 믿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고, ‘신자의 침례’ 때 죄 사함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의 선물 곧 성령의 임재 내주 동거가 이뤄진다고 믿었다.

##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따라서 ‘신자의’에서 **‘신자’**란 침례를 받아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같은 진술에 동의하고 고백하며 죄를 회개한 자를 말하며, **‘침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시간** 개념 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의 **장소** 개념으로 본다.
- 여기서 **‘시간’**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정이 이뤄진 후 배아(회개)와 태아(고백)의 과정을 거쳐 양수를 터뜨리고(물에서 나옴) 새 세상에 나오는 출산(침례) 시간을 말한다.

# 침례교운동

참고: '16세기 종교개혁운동과 침례교회'  
(김승진 교수 / 침신대 신학과, 역사신학)

- 한 때(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남부지방의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지계석주의'(Landmarkism)운동**이 유행하였었는데, 이 운동의 주창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였으며, 그 분이 받고 베푸신 침수례(Immersion Baptism)가 교회역사 상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침례교회 전승설'(Baptist Church Successionism)**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설에 의하면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존재해 왔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다.

- 20세기초까지 이 학설이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통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전세계 침례교 신학계에서나 역사학계에서 객관적이고 건전한 이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운동의 한 결실이고, 개신교회들 가운데 하나이며, 유아세례와 국가교회체제를 거부하는 자유교회운동에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이다.
- 17세기초에 시작된 초창기 침례교운동은 루터, 칼뱅, 츠빙글리, 성공회 등 주류종교개혁가들(**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대중(신자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다.

- **침례교운동은** 세상과 세속정부에 대해 적대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성경적 재침례파들을 넘어서서, 보다 더 신약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했던 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0여년 전까지는 **침례교회 전승설(Baptist Church Successionism)**이 영국과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통설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이론으로서는 이미 **폐기된 학설**이다.
- **침례교운동은** 영국 국교에 반대한 분리주의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피신한 암스테르담에서 재침례파들이 행한 ‘신자의 침례’에 영향을 받아 일으킨 운동이며, 중앙집권적 국교정치에 반대한 만큼 개 교회들의 자치권과 민주적 회중정치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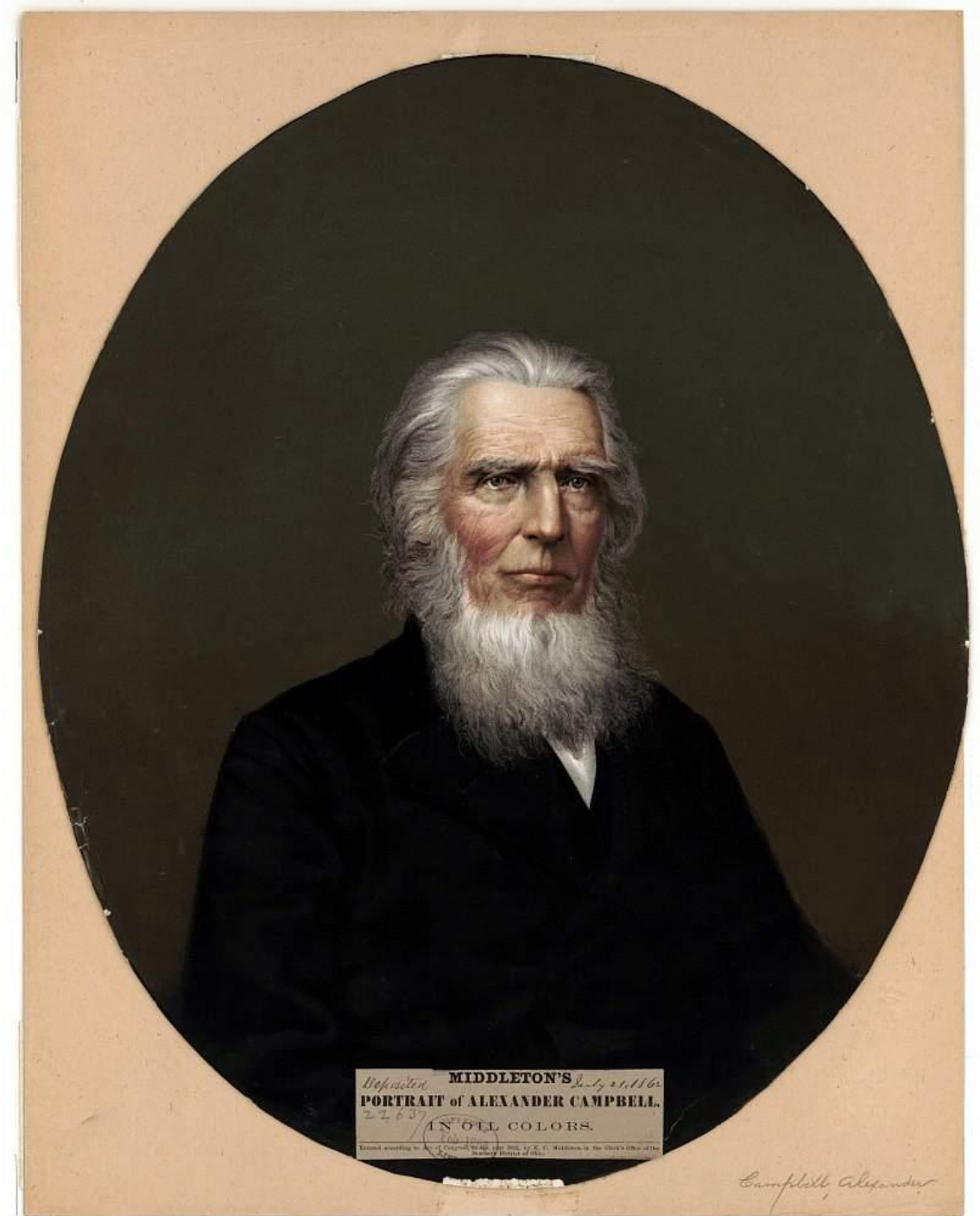
- **침례교운동**엔 원래 지상에 지방회, 노회, 연합회, 선교단체, 연회, 총회 등의 기구들이 없었다. **오늘날 침례교**는 지역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을 위하여 이러한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기구들은 어디까지나 지역교회와 그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 스톤-캠벨운동권에는 이러한 기구들이 없다. 이 운동권의 세 지류 중 하나인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만 1964년에 교단 재구성을 마치고 총회 조직을 갖추었다.
- **침례교운동**은 성직계급제도(Priestly Hierarchy)나 성직자 중심주의(Sacerdotalism)를 배격하였다.

- **침례교운동은** 교회가 ‘신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Spiritual Body of Believers)여야 한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 **침례교운동은** 신약성경적 교회, 다시 말하면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 313) 이전의 순수했던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The headquarters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is shown on Wednesday, Dec. 7, 2011, in Nashville, Tenn.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  
**1788-1866**  
**19세기 전반기 영미권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가입

- Thomas와 Alexander Campbell 부자가 **Brush Run Church**를 시작한 날짜는 **1811년** 6월 16일이었고, 장로교 목사와 아들이었던 그들은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Mathias Luce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 **Brush Run Church**는 침례교인들의 강권에 따라 **1813년** 가을에 **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가입

- **1816년 9월 1일 28세 때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09.12 - 1866.03.04)이 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긴 '율법에 관한 설교'(Sermon on the Law)로 인해서 서서히 침례교와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 알렉산더는 이 설교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구약성정보다는 신약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가입

- 알렉산더는 장로교 목사 **John Walker**의 도전을 받아드려 **1820년** 6월 19-20일 양일간 오하이오 주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침례에 대해 토론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1823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Wellsburg에 교회를 세워 **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 알렉산더는 **1823년** 10월 15-21일 켄터키 주 워싱턴에서 장로교 목사 **William Latta McCalla(1788-1859)**와 침례에 관해 토론하여 또 다시 크게 성공함으로써 캠벨의 개혁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탈퇴

- 알렉산더 캠벨은 <크리스천 뱅티스트>(Christian Baptist, 1823-30년)지를 통해 '옛 질서(직제)들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 캠벨은 1829년 4월 신시내티에서 무신론자 Robert Owen(1771-1858)과의 토론 및 1837년 1월 13-21일 가톨릭교 주교 John Baptist Purcell(1800-1883)과의 토론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 알렉산더 캠벨은 1830년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를 창간하였고, 월터 스코트와 함께 Mahoning Baptist Association를 탈퇴하였으며, 동년에 협의회도 해체 되었다.

##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탈퇴

-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장로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Nathan L. Rice** 목사(박사)를 내 세워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켄터키 주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침례와 회심과 성화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하였다. 당시 알렉산더는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 그리고 **1850년대 기간**에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Robinson Graves(1820-1893)** 및 지계석주의를 반대한 **Jeremiah Bell Jeter(1802-1880)**와도 격렬하게 논쟁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의 계시의 점진성

- 19세기 종교개혁가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1866)은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인류시대를 ‘별빛 시대’(=족장시대), ‘달빛 시대’(=모세시대), ‘새벽빛 시대’(=세례 요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태양빛 시대’(=그리스도교)로 구별하였다.
- 따라서 캠벨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그리스도의교회들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표어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우리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이다. 이 표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적 입장이 담겨 있다.

#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캠벨은 개인적으로 유아세례를 비성서적이며 인위적인 교회전통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하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믿으면서 1849년 3월에 “나는 이 의식 [유아세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Millennial Harbinger(1849), p. 131.]라고 하였다. 캠벨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Letters to England-No. 1,” Millennial Harbinger(June 1837)]고 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또 캠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성인, 혹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혹은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사람 모두를 인정한다... 그러면,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세례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그것들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침수세례의 진실 되고 성경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침수세례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는 산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Lunenberg,” Millennial Harbinger(July 1837)고 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캠벨에게 있어서 침례의 형식적 개념은 시간적 장소적 개념으로써 이 해되는 한편, 침례의 실질적인 효력은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속에서 파악된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죄 은총의 수단이요, 침례는 단순히 사죄에 대한 확신의 수단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칭의의 수단이요, 침례의 목적은 “사죄 즉 용서의 서약,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부활의 확신”이다  
[Millennial Harbinger(1849), p. 62.]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볼 때는 엄숙한 인침과 서약과 공식적인 확신이다.[Christian Baptism, p. 205.]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캠벨은 이점을 다음의 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효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된 믿음 가운데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받는 죄 사함은 물이나 침수 때문이 아니라, 피침례자가 고백하고 소유한 믿음 때문이다. 침례는 그 자체가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표지요, 서약이다. 물이나 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침례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우리의 관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인침일 뿐이다. [Millennial Harbinger(November 1849), p. 611.]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이로부터 20년 전 그는 이미 믿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수단 또는 매체로써의 믿음을 피력한 바 있고, “믿음은 진실로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근원적 매체이다” [Christian Baptist (June 1828), p. 255.]라고 했다. 때문에 침례는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침례는 믿음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고백이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Christian Baptism, p. 221.]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믿음, 침례는 상관적이다. 그래서 캠벨은 “칭의, 성화, 양자됨이 ... 복음적으로 주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침례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연결 된다.” [Christian Baptism, p. 229.]고 했다.

#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이러한 맥락에서 알렉산더 캠벨도 “침례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도, 도덕적 의무도, 도덕적 의로움도 아니며, 단순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맡기는 것이다.” [Christian Baptism p. 229.]고 하였다. 때문에 믿음 없는 침례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가치하다. 진실로 침례는 믿음에 대한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고백이다. 이는 루터가 약속과 믿음을 떠나 성례의 효력을 구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고 한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원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을 위한 공덕원인, 믿음을 구원을 받는 도구적 원인, 침례를 모든 영적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4대 요소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은혜를 구원의 바탕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침례를 시간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캠벨은 살아생전에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회복하려 (To restore the ancient order of things) 했고,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그 하나로 침례를 택하였던 것이며, 침례의 방법, 대상, 목적을 통해서, 침수세례를 방법으로, 회개한 신자를 대상으로, 죄 사함을 목적으로 할 때, 진정한 성경적 그리스도인 침례 (biblical Christian baptism)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법과 대상과 그 목적을 다르게 세례(sprinkling) 하는 교단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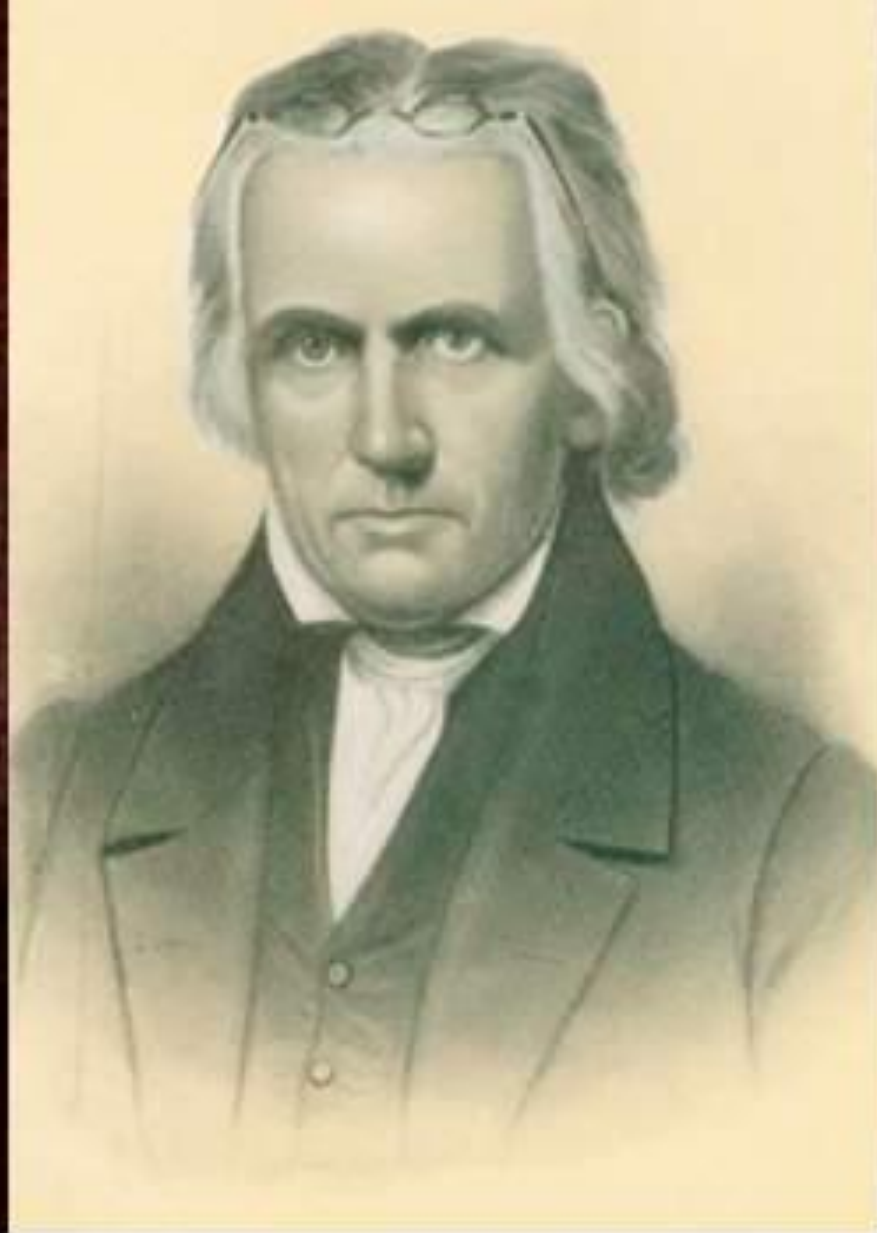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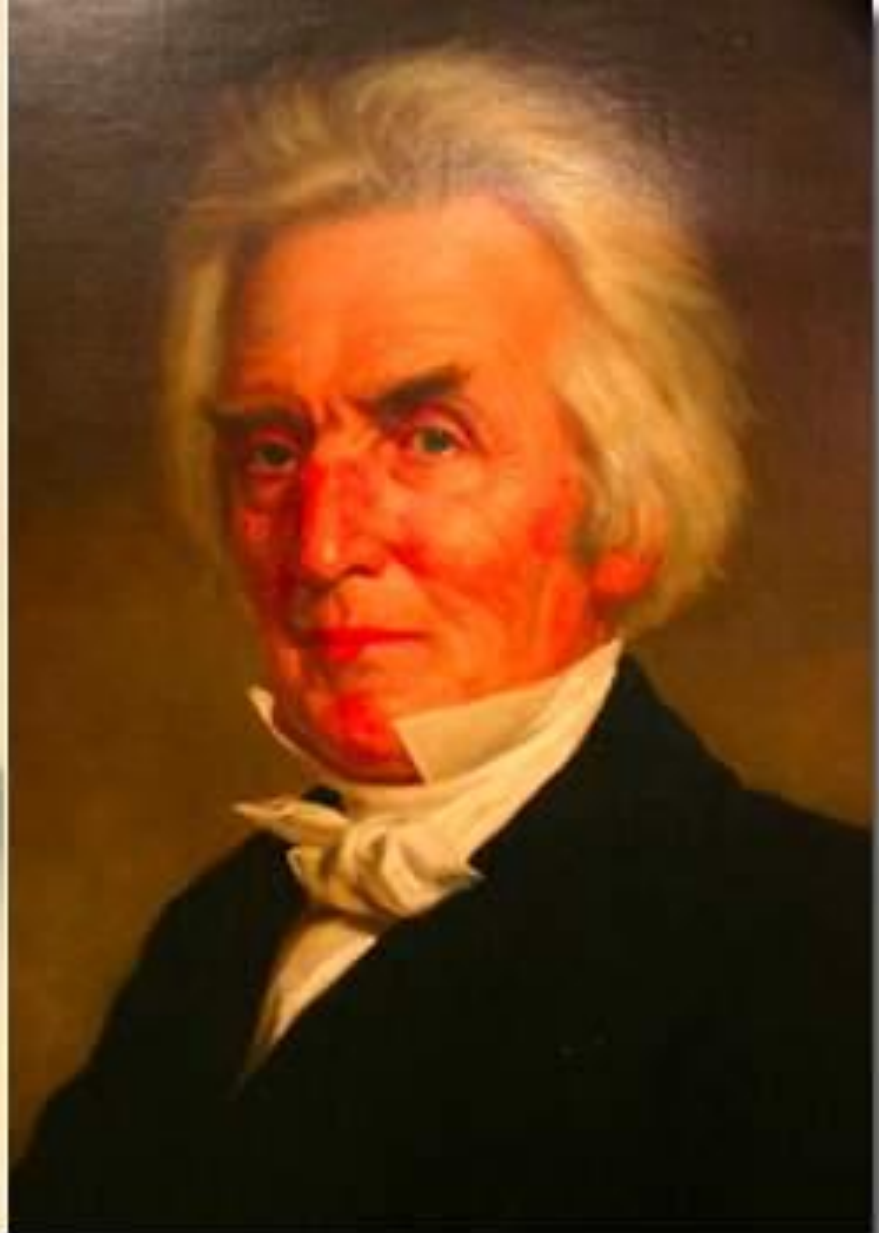
- 다만 상호간의 다름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옳음을 파악하고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옳음을 파악하고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정(正)에 반(反)하여 합(合)을 이루는 변증법적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알렉산더 캠벨은 인위적 전통(正)을 개혁(反)하여 신성한 성경, 특히 신약성경교회의 것들(초기 교회의 믿음과 실천)을 회복시킴으로써 분열된 그리스도교의 합(一致)을 도모하였다.



Barton W. Stone  
1772-1844



Thomas Campbell  
1763-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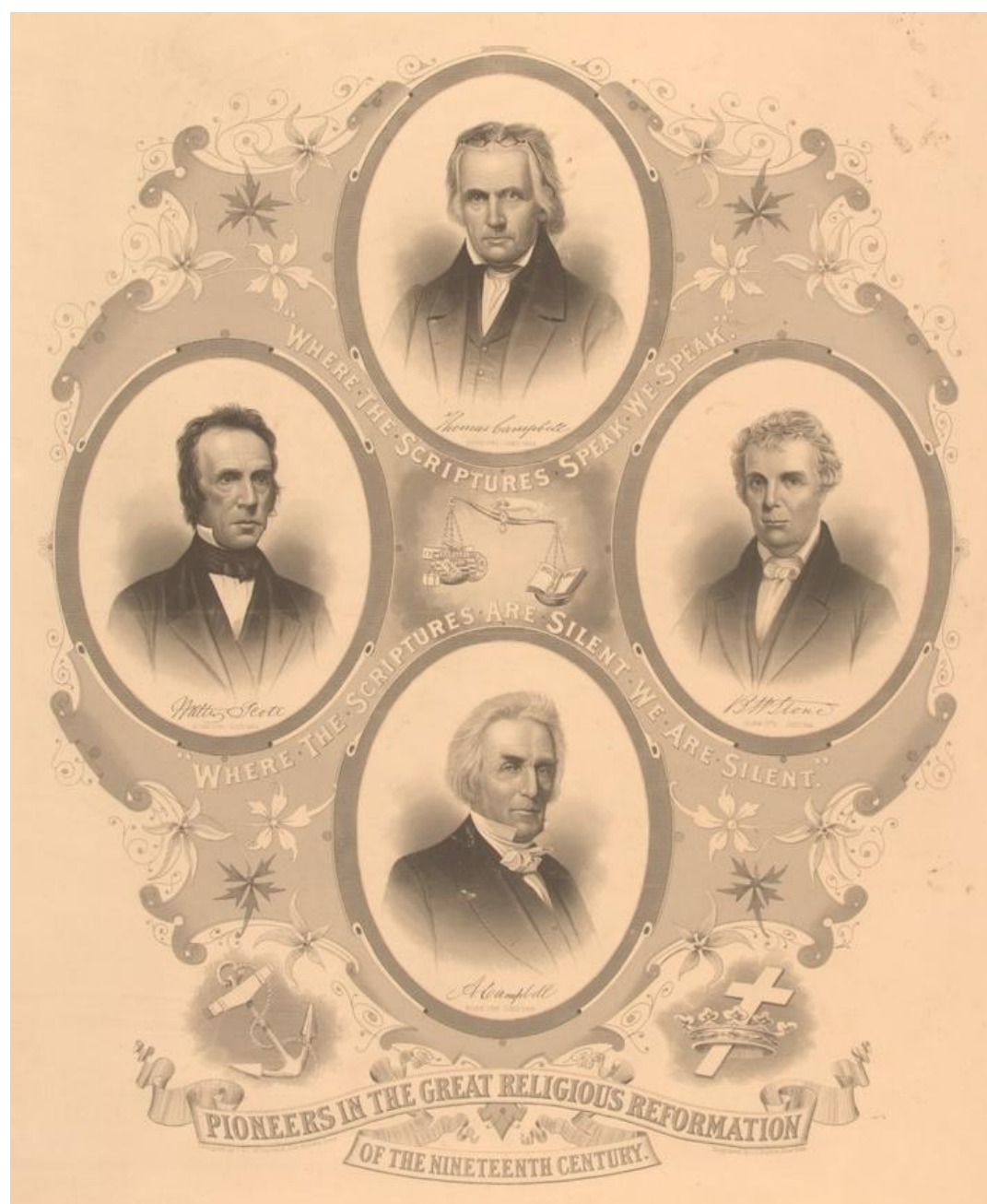


Alexander Campbell  
1788-1866

Thomas  
Campbell

Walter Scott

Alexander  
Campbell



Barton W.  
Stone

1800년대 전반기 개혁(환원)가들

1800년대의 논쟁들은 모두 미국의 서부개척지에서 일어났다.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루이지애나 주

##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의 치열한 논쟁

- 1820년대 이후 50년대까지 약 40년간의 알렉산더 캠벨의 삶은 개혁(환원)운동을 지켜내기 위한 논쟁의 연속이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었다. 그것은 곧 칼뱅주의와의 싸움이었다.
- 당시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칼뱅주의였다. 그들이 침례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입교를 위한 것이었고, 신자의 침례나 세례의 경우는 반드시 회심체험이 우선되어야 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또는 회심체험의 증거를 검증 받고서야 침례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콧은 구도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지체 없이 베풀었다.
- 당시 침례교와 장로교는 성령의 조명론과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직접 사역을 강조하였다. 결국 알렉산더 캠벨이 관여했던 침례에 관한 토론은 이 두 가지 쟁점 곧 침례의 목적과 회심 중 성령의 사역이었다.

# Alexander Campbell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MR. JOHN WALKER,  
A MINISTER OF THE SECESSION,  
AND ALEXANDER CAMPBELL

Held at Mount-Pleasant, on the 19th and 20th June, 1820,  
in the Presence of a Very Numerous and Respectable  
Congregation; To Which Is Added a Large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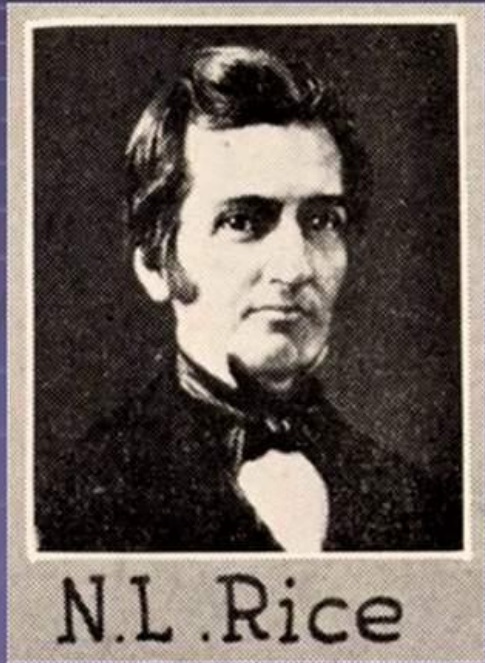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the Rev. W. L. Maccalla,  
a Presbyterian Teacher, and  
Alexander Campbell, Held at  
Washington, Ky. Commencing  
On the 15Th and Terminating  
On the 21St Oct. 1823, in the  
Presence of a Very Numerous  
and Respectable Congre -  
Primary Source Edition

William Latta McCalla, Alexander Camp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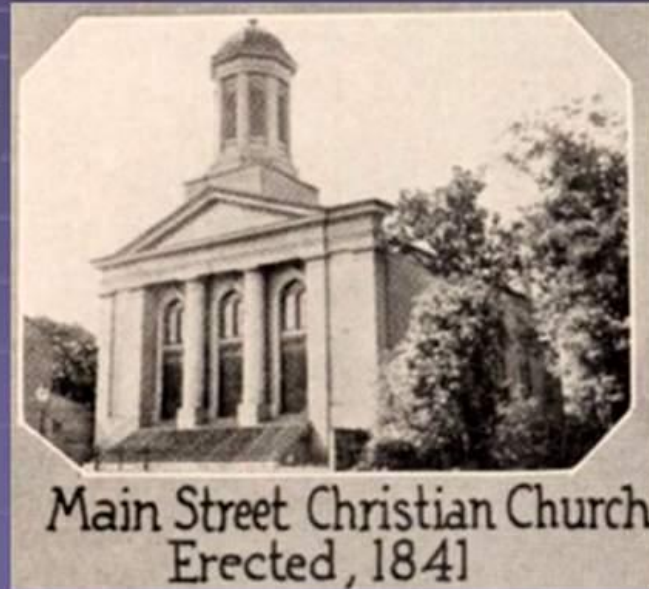
##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에 관한 토론

- 존 워커 (1820.06.19-20, 오하이오 주 마운트 플레전트)
- 윌리엄 맥칼라 (1823.10.15-21, 켄터키 주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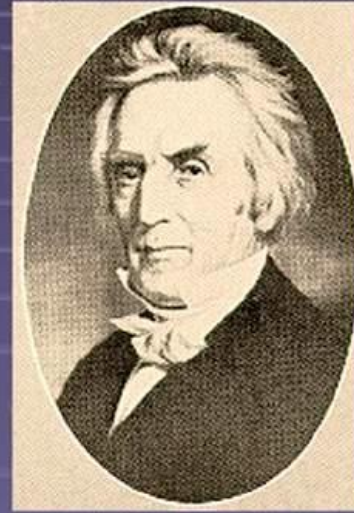
# 1843 Campbell-Rice Debate, Campbell's Last Public Debate Lasted Sixteen Days



N.L. Rice  
1843 - 36  
Years Old



Main Street Christian Church  
Erected, 1841



1843 - 55  
Years Old

##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Also, On the Character of Spiritual  
Influence in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 and On the Expediency  
and Tendency of Ecclesiasti



NATHAN LEWIS RICE, MARCUS TULLIUS  
CICERO GOULD, ALEXANDER CAMPBELL, A  
EUCLID DRAPIER

알렉산더 캠벨 대푯 나단 라이스 공개토론이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속기된 공개토론 내용은 책(902쪽)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캠벨은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 사도행전 2장 38절의 eis + 대격을 for, unto, so that, in order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

## “βαπτισθήτω... εἰς 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

### Scriptural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King James Vers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American Standard Version** - "unto the remission of sins."

**New King James Vers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New International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Revised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 "so that your sins may be forgive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World English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sins."

**Bible in Basic English**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Good News Bible**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God's Word**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Young's Literal Translation** - "to remission of sins."

**Modern King James Version** - "to remission of sins."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English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 "to remission of sins."

**New English Translat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ew Living Translat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Today's English Version**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The Douay-Rheims Bible** -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Hebrew Names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e Webster Bible** - "for the remission of sins."

**Wesley's New Testament** - "to the remission of sins."

**Third Millennium Bible** - "for the remission of sins."

**The Darby Translat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J. B. Philips Translation** - "so that you may have your sins forgiven."

**New American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mplifie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and release from your sins."

**Worldwide English Bible** - "Your wrong ways will be forgiven you."

**Weymouth Bible** - "with a view 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Revised King James New Testament** - "for the remission of sins."

**Modern Literal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Common Version New Testament**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Interlinear Greek New Testament** - "for remission of sins."

**Living Oracles** - "in order to the remission of sins."

**Montgomery New Testament** -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The Emphasized Bible** - "in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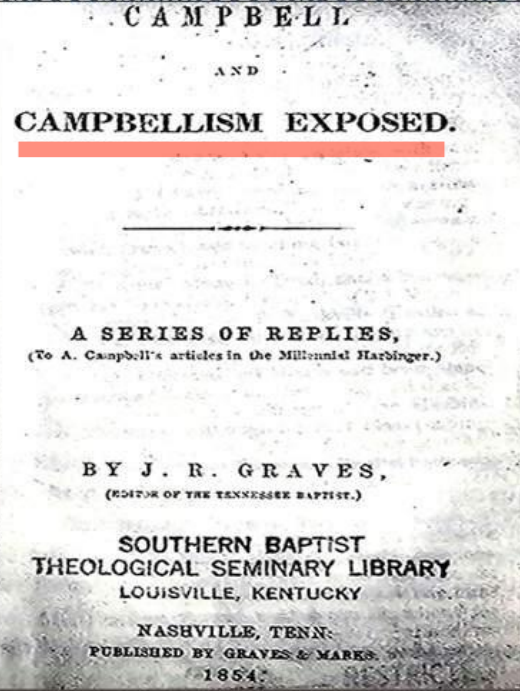
**Covenant Edition New Testament** - "to cancel your sins."

**Christian Standar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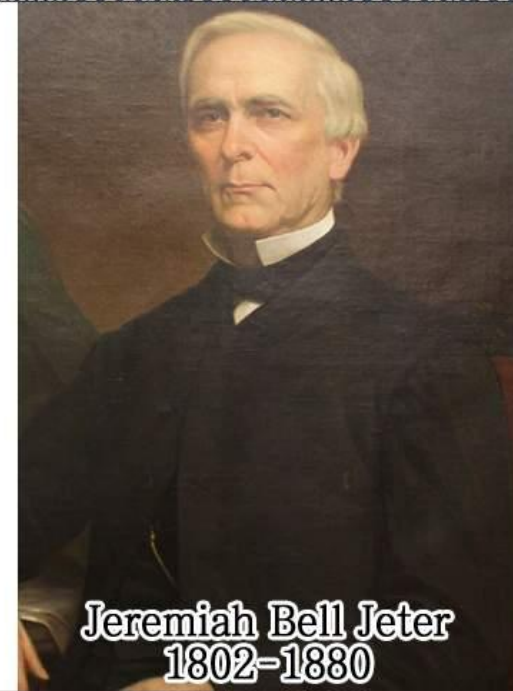
\*헬라이어 구문에서 eis+대격을 거의 모든 언어의 성경들에서 "위하여"(for, 목적)로 번역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한국어 성경들에서는 유일하게 말씀보존학회가 출판한 <한글킹>과 <표준킹>에서만 "인하여"(because of, 결과)로 번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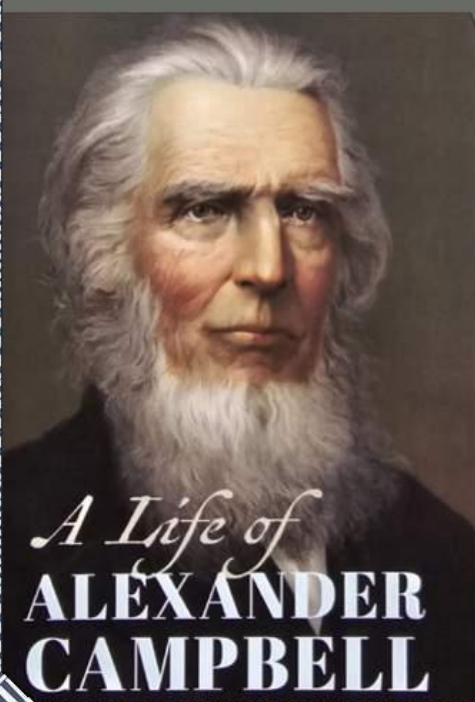
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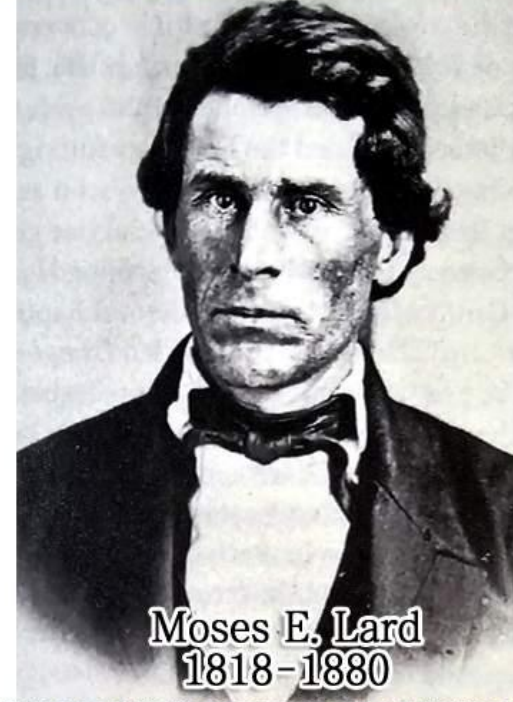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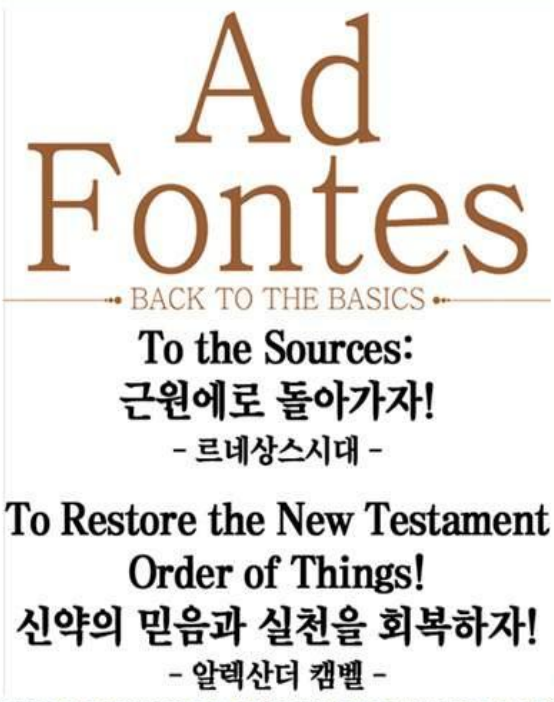
침례교인들  
대  
알렉산더  
캠벨과  
개혁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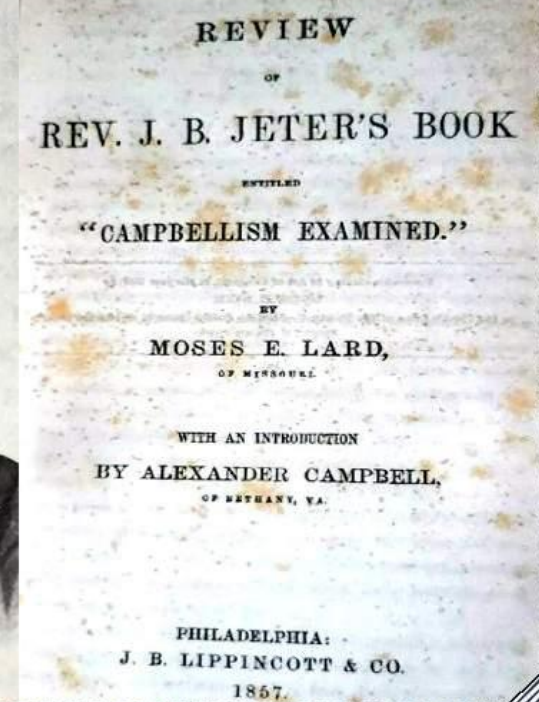
Jeremiah Bell Jeter  
1802-1880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Moses E. Lard  
1818-1880



- 1860년 그레이브스는 침례에 대한 가르침들과 실행에 관한 논의에서 캠벨의 개혁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레이브스는 캠벨이 1812년 (\*6월12일 버팔로 개울)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는 침례가 죄 사함과 심령에 중생을 가져온다는 개념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이제 침례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캠벨 씨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재판관으로서, 결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의 초기 목회자들이나 추종자들 중 누구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순한 샘에서 순수한 시냇물이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캠벨주의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지 않았고 침례를 베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 교파 전체가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J. R. Graves, The Trilemma; or, Death by Three Horns (Nashville: Southwestern Publishing House, 1860), 195-96.]

- 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Farewell. B. W. Stone*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Barton W. Stone(1772-1844)의 자필 사인 "Farewell"

- 월터 스콧은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누가 먼저 공개적으로 반포했는가를 놓고 캠벨과 우위권을 다투고,
- '회복된 복음'이란 주제로 캠벨과 다투었다.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The Lord bless Your Labours  
Walter Scott*

Walter Scott(1796-1861)의 자필 사인  
"The Lord bless your labours."

#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논쟁의 핵심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가?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구원 받은 자)이 있는가?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란 인식 없이 베풀거나 받은 침례가 유효한가?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란 인식 없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재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 알렉산더 캠벨의 루넨버그 서신 논쟁

시간 2025년 6월 15일 오후 5시

장소 따름과누림 교회(류장열 목사)(9호선 신방화역 6번출구)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마곡WE타워 712호

발표 조동호 박사

회장 조재형 박사

논찬 전인수 박사

총무 박주필 박사

\*참석자에게 자료와 식사 제공합니다. 주차 가능합니다. 문의: 010 - 5063 - 8738



환원운동연구회  
Restoration Movement  
Studies of Korea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John Thomas, M. D.*

John Thomas(1805-1871)의 자필 사인  
의사, Christadelphians의 창시자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을 1848년 미국에서 창립한 존 토마스(John Thomas, 1805–1871)는 영국인 의사로서 알렉산더 캠벨의 교회 개혁(환원)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 존 토마스는 1832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약 1년간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한 후 리치먼드로 이사하였고, 1834년 5월에 <사도의 대변자>(Apostolic Advocate)를 창간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은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 1837년 6월호에 “Letters to England-No. 1”이란 제목의 기사(記事)를 게재하였는데, 캠벨이 쓴 그 글에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라는 문구가 있었다.

- 존 토마스와의 그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버지니아 주 루넨버그의 한 여성이 개신교의 타 교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뉘앙스의 이 캠벨의 문구를 문제 삼아 소위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논쟁은 1837년부터 1840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 **존 토마스 그룹이 주장한 논쟁의 핵심**은 신자의 침수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것과 그조차도 침례자와 피침례자가 모두 침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시행해야 유효한 침례라는 것이며, 만일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침수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 논쟁의 결과로 알렉산더 캠벨의 환원운동권의 교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존 토마스는 1844년 리치몬드 교회를 캠벨 운동에서 철수하여 1848년 ‘**그리스도 안의 형제회**’ (Brethren in Christ)를 결성하였고, 1847년에 **재침례**를 받았다. 토마스과 연계된 그룹들은 Believers, Baptized Believers, the Royal Association of Believers, Baptized Believers in the Kingdom of God, Nazarines (or Nazarenes), The Antipas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이란 교파명은 남북전쟁(1861-65) 당시인 1864년에 미국과 미국 남부동맹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conscientious objector status)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 이 교파를 현체제의 ‘그리스도아델피안’으로 형성시킨 인물은 존 토마스의 성경 해석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로버트 로버츠(Robert Roberts, 1839-1898)였다.
- 로버트 로버츠는 1864년에 <다가오는 시대의 대사>(The Ambassador of the Coming Age)지를 창간하였고, 존 토마스의 권유로 1864년에 <그리스도아델피안>(The Christadelphian)지로 잡지명을 변경하였으며, 1871년 존 토마스의 사망이후 교단발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국 바스에 소재한  
그리스도아델피안 예배당  
Christadelphian Hall  
in Bath, England



미국 뉴욕 주 버팔로에  
소재한  
그리스도아델피안 예배당  
Christadelphian Hall  
in Buffalo, NY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은 1848년 미국에서 존 토마스(John Thomas, 1805–1871, 의사)에 의해 창설된 기독교 내 회복(환원)주의, 유니테리언 계열의 종교단체이다.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adelphoi en Cristou”(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에서 유래했다.
- 이 단체는 사도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성경의 영감설과 무오류설,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침수세례,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뤄질 왕국의 회복을 믿는다.
- 이 교파에는 그들의 신념을 유지시킬 중앙조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공식적인 신앙 선언문(예: 버밍엄 개정 신앙 선언문)에는 수용해야 할 교리와 거부해야 할 교리 35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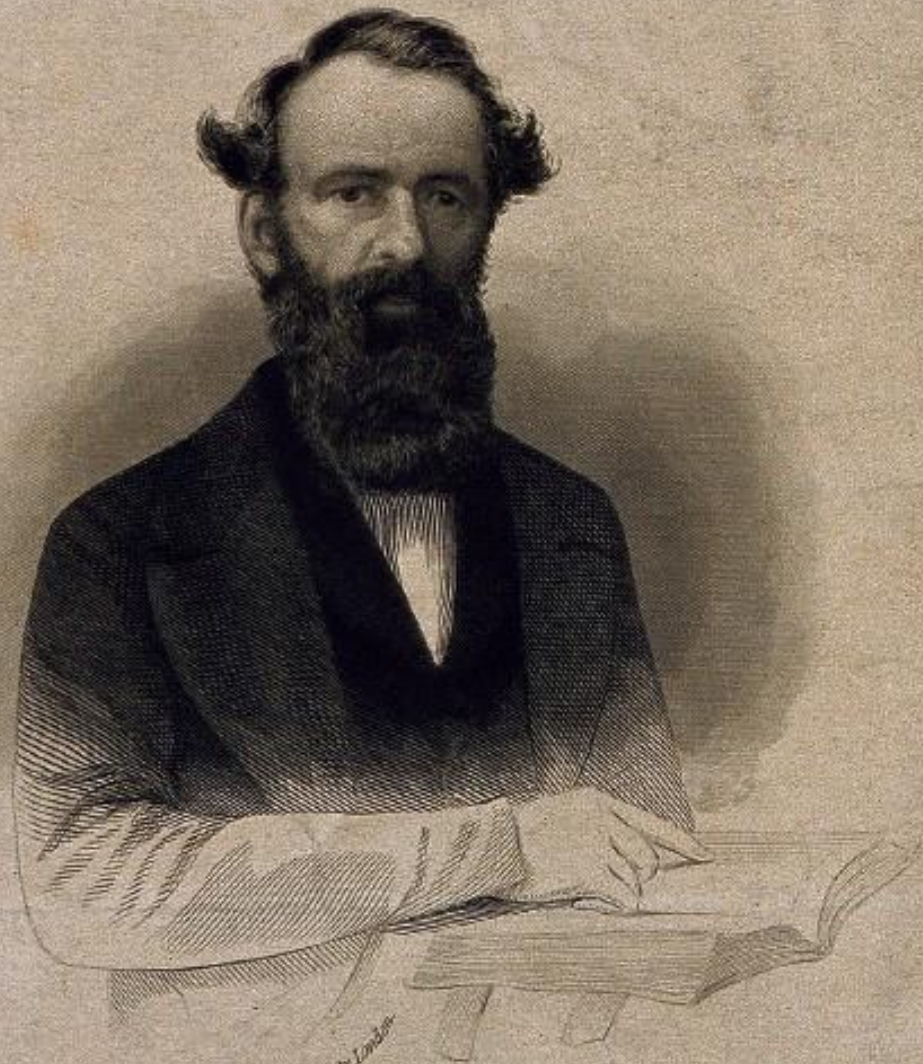
- 1세기 교회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주의자들이므로 성경의 영감설과 무오류설을 믿는다.
- 하나님을 창조주와 참된 신자들의 아버지로 믿는다.
- 예수님의 선재설을 부정하며, **삼위일체설을 거부**한다.
- **성령의 인성을 부정**하며,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에 지상에 이스라엘 중심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는다(세대주의 또는 Messianic Jews의 신념과 동일).
- 마귀는 죄와 인간본성에, 사탄은 적대자에 대한 표현으로 보며, 지옥을 영원한 죽음과 그 상태로 본다. 따라서 **마귀, 사탄, 영혼 불멸,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다.**

- 신자의 침수세례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받아드린다. 신자의 침례조차도 침례자와 피침례자가 모두 침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시행해야 유효한 침례라고 본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침수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침례를 받도록 요구한다.
-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문 결과로 온다고 믿는다. 죽음은 필연적이고 잠자는 것이므로 낙원에 올라가지 않으며 무(無)의 상태에 있다가 재림 후 불멸의 선물을 받고 회복된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 노릇 한다고 믿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념과 동일).
- 목사와 같은 교직 제도를 두지 않는다.

- 예배당을 일반적으로 “hall”이라고 부르며, 약 120여 개국에 55,000여명의 교인이 있다. 대부분의 교인은 영국,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및 인도에 거주하고 있다.
- 삼위일체설, 영혼불멸설 및 영원한 지옥 부정, soul sleep, 예수님의 인성 강조 등의 교리는 ‘여호와와의 증인’과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회’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들을 승리주의와 원시교회 전승설에 입각하여 참 교회 혹은 본래적 교회를 복원한 그룹으로 주장하였다.
- 회중들은 종종 자신들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스”(ecclesias)라고 부른다. 이 말은 “교회”라는 뜻이며 신자들의 회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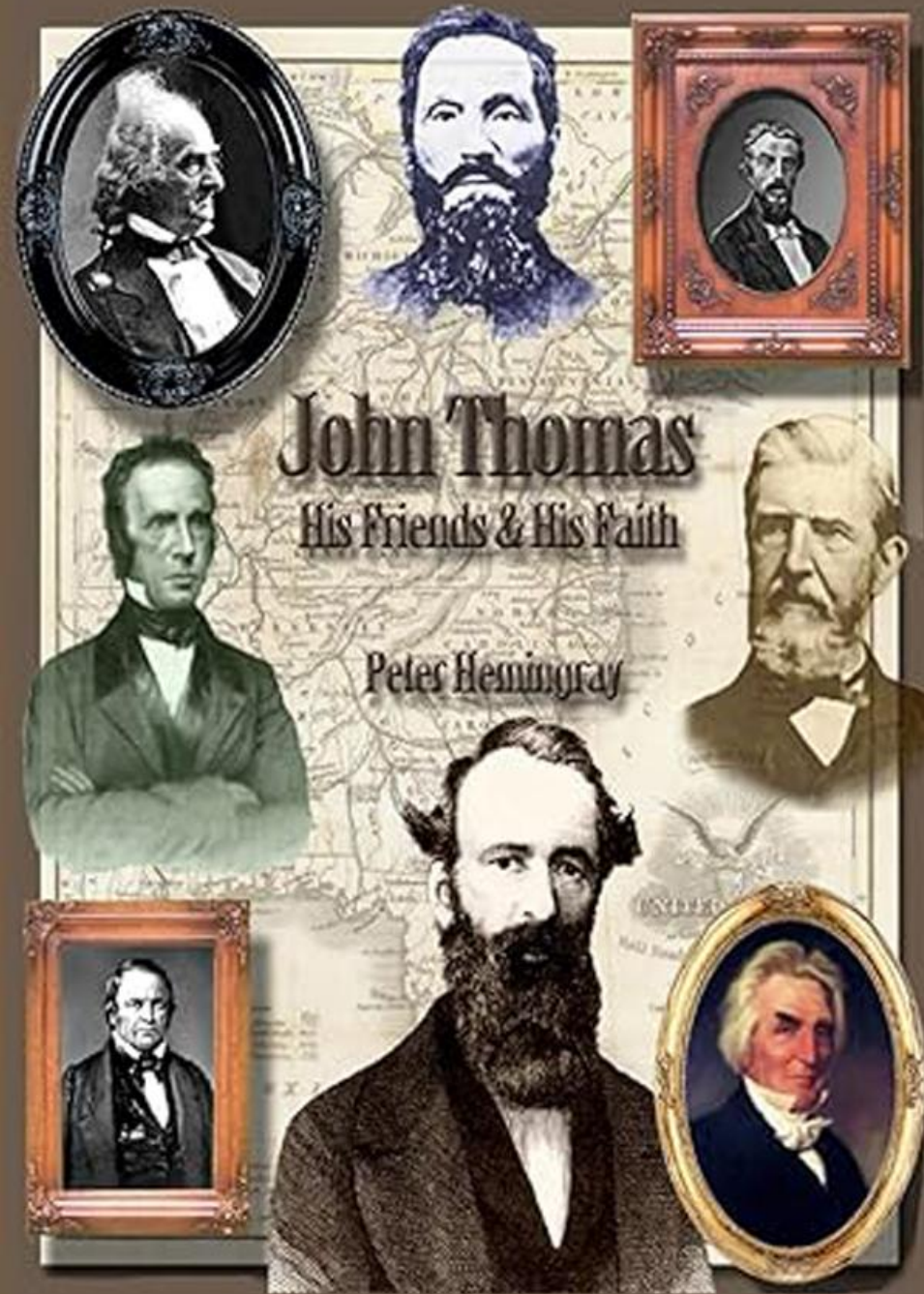
- 신념과 뿌리를 공유하는 그룹에는 the Nazarene Fellowship, the Ecclesia of Christ, the Remnant of Christ's Ecclesia, the Apostolic Fellowship of Christ, the Apostolic Ecclesia, The Church of God of the Abrahamic Faith가 있다.
- 그리스도아델피안은 교회가 회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 초대교회의 관례를 따라 가정교회(롬 16:5, 고전 16:19, 골 4:15) 형태를 유지하며 집, 임대 홀 또는 자체 홀에서 모임을 갖는다.
- 중앙 집권적 조직을 갖지 않으며, 개별 회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 그들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격려 받는다.
- 보수를 받는 성직자를 두지 않고, 자발적인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Glad Tidings(1884년 이후)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The Christadelphian(1864년 이후), Milestones 등의 정기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다.
- 주요 서적으로 Bible Companion, Elpis Israel, Eureka, Christendom Astray 등이 있다.
- 그리스도아델피안은 화려한 건물, 성직자 또는 성상과 같은 장식이 없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강한 가족 의식과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



Engr. by THELIS, Jewin, St. City, London

John Thomas, M.D.



# Elpis Israel

John Tho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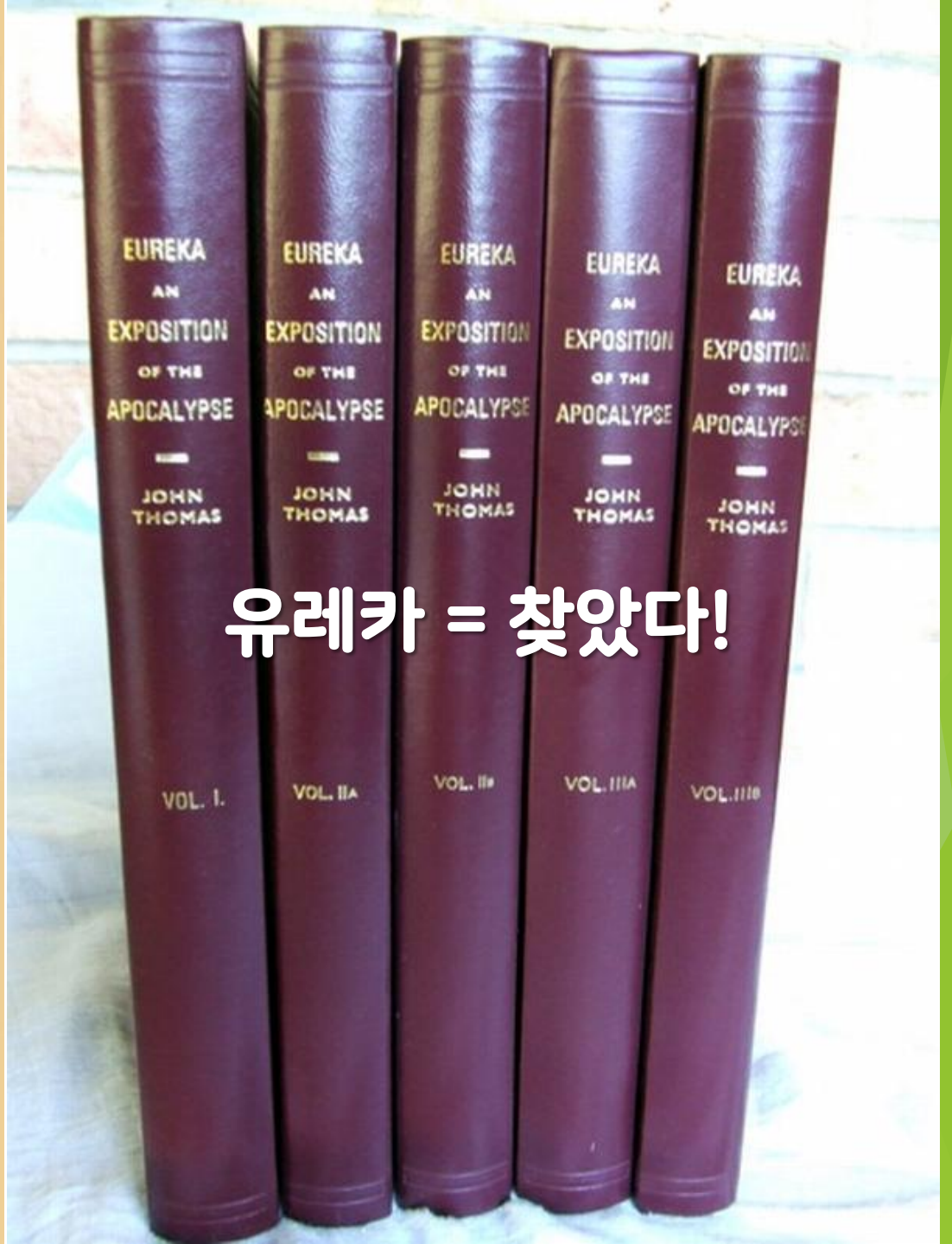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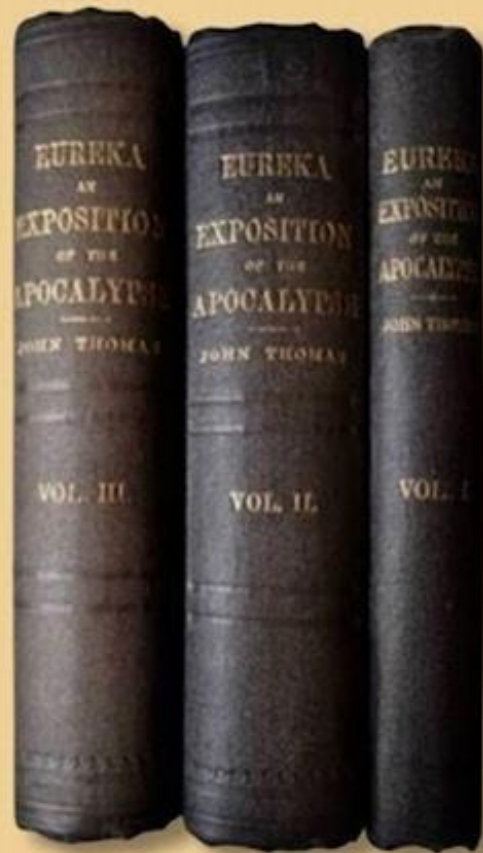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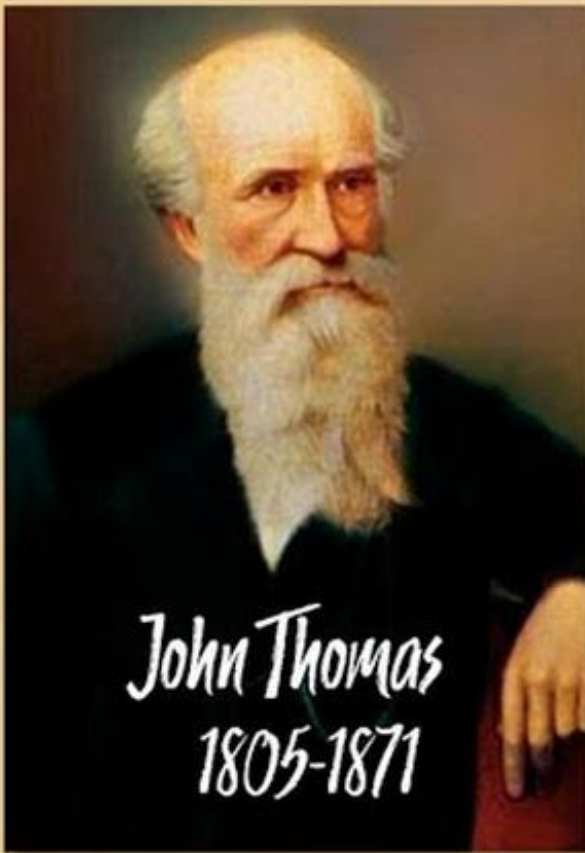
The Perfect Library

## ELPIS ISRAEL

*"The Hope of Isra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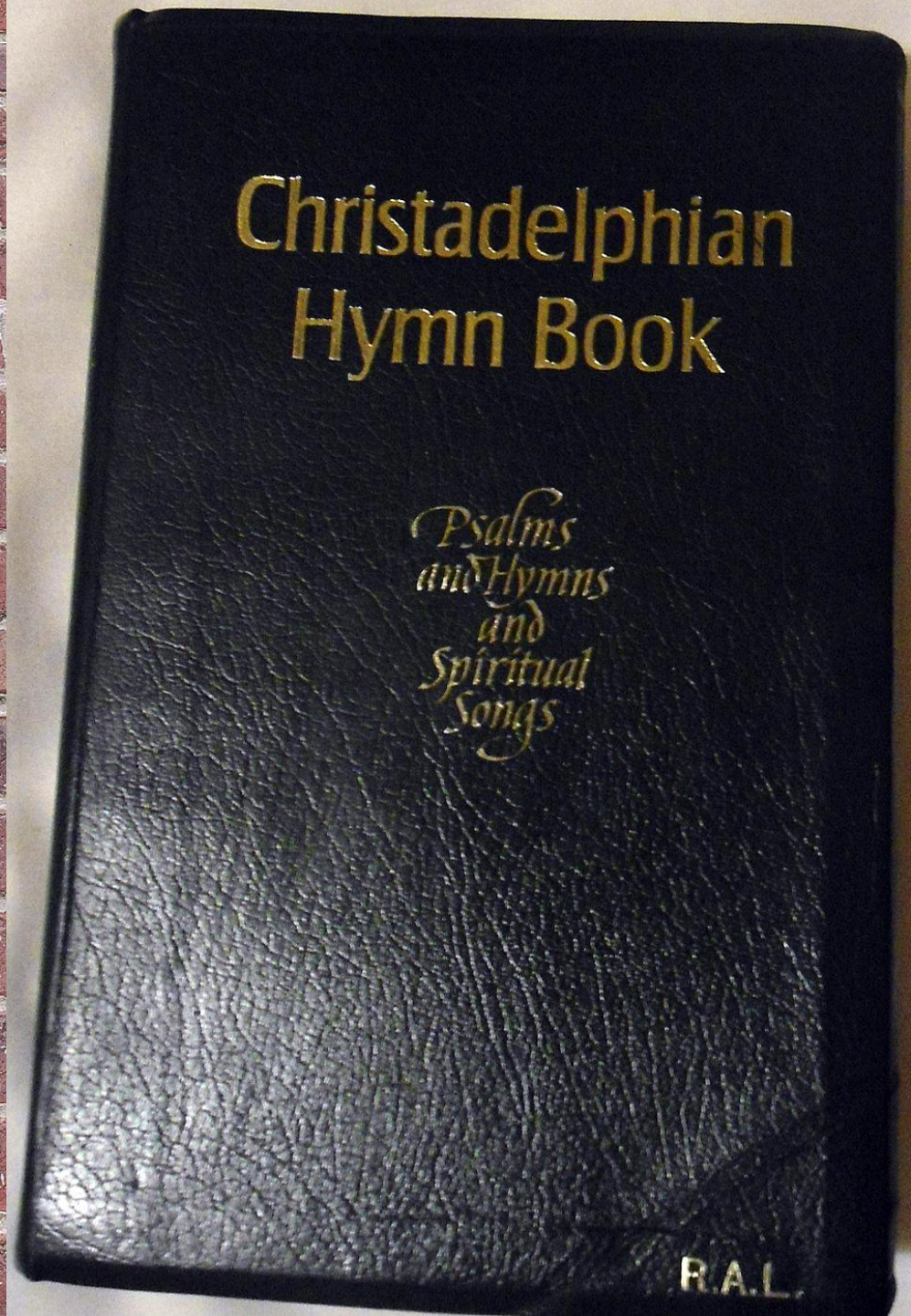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희망

Original Edition By  
John Thomas



유레카 = 찾았다!

An audio reading of all volumes of  
"EUREKA"  
An exposition of the APOCALYPSE





DR. THOMAS AGED 64 — THIRD VISIT TO  
BRITAIN



DR. THOMAS' GRAVE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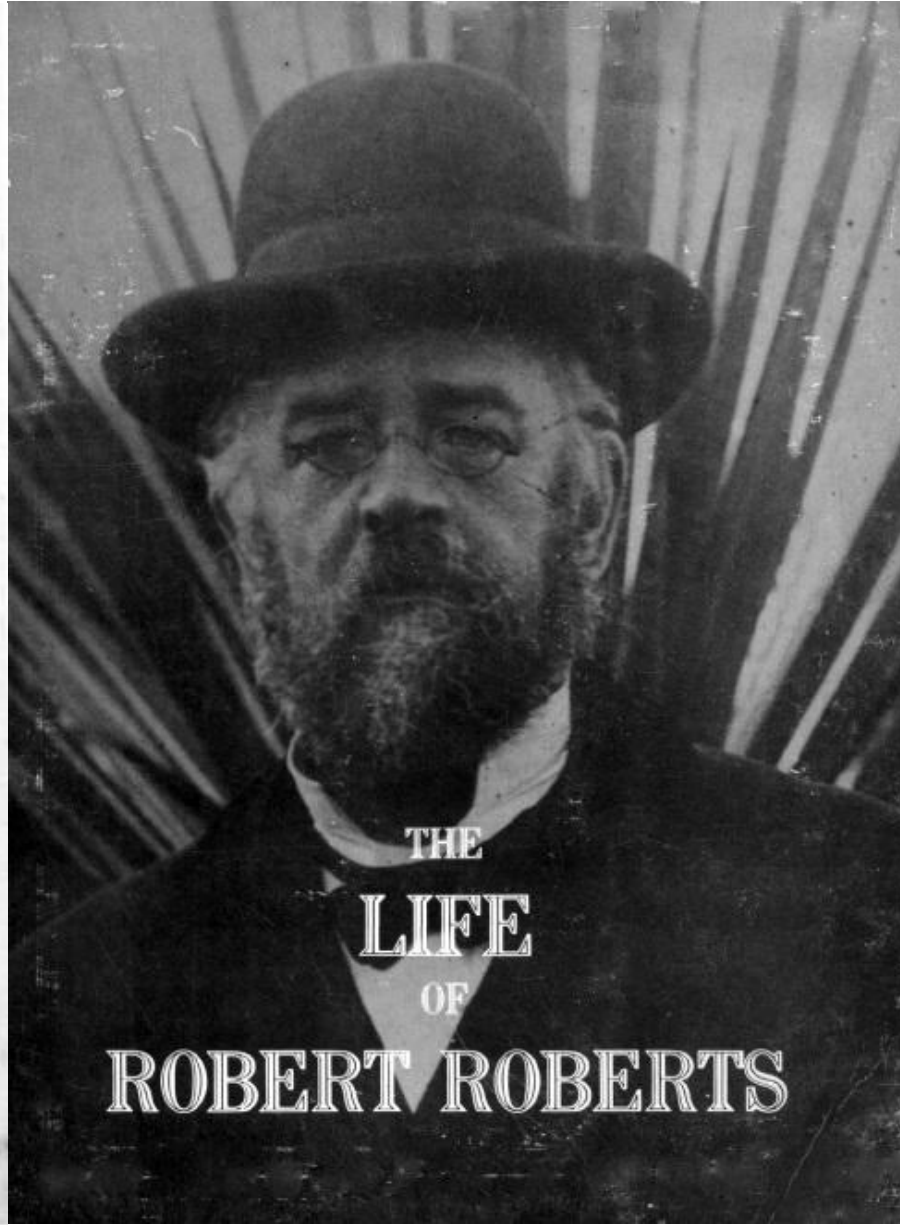


"JOHN SMITH" — FICTITIOUS AUTHOR OF  
"ENGLAND'S RUIN"



ROBERT ROBERTS — EDITOR OF "THE  
CHRISTADELPHIAN"

로버트 로버츠 (Robert Roberts, 1839-1898)



ROBERT ROBERTS

로버트 로버츠 (Robert Roberts, 1839-1898)



**Green-Wood Cemetery  
Greenwood Heights, Kings  
County, New York, USA**



**BRO. ROBERTS' GRAVE ALONGSIDE OF  
BROTHER AND SISTER THOMAS'**

Here lies  
Robert Roberts  
of Birmingham England  
Editor of the  
Christadelphian, Author  
of Christendom Astray  
and many other works  
who for forty years in the  
front ranks of the  
Christadelphians  
aided and continued the work  
begun by Dr. Thomas by whose  
side he now sleeps in Jesus.  
Born April 8th, 1839  
Died September 23rd, 1898

For Robert Roberts the Kingdom was here - he had spent his life busily engaged in the Master's service. His days were not just a story that is told, but behind him was an Ecclesial world consolidated through his labours and the much better off with the wealth of writing he had spent his days so busily engaged in. Here lay side by side two stalwart labourers who had sacrificed all human interests on the altar of their faith. Robert Roberts now lay in hope, awaiting his greatest longing — the Kingdom.

## 루넨버그(Lunenburg) 서신 논쟁

- 알렉산더 캠벨이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 1837년 6월호 기사, “Letters to England-No. 1”에서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존 토마스와의 그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버지니아 주 루넨버그의 한 여성 (훗날 연구자에 의해서 루이사 앤더슨/Luisa Anderson으로 밝혀짐)이 “그리스도인 (Christian)의 이름이 오로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로 장사된 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며 ‘미침수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이에 알렉산더 캠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특성의 표준을 정할 수 없으며, 침례조차도 정할 수 없다…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침수의 진실 되고 성서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침수세례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는 산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에 침수자 신앙인들에게 주어졌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루넨버그의 자매는 물론 그들(존 토마스과 그 추종자들) 과도 기꺼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약성경의 모든 진보된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유대인이나 구약의 족장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제도의 최상의 가치와 우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만큼, 교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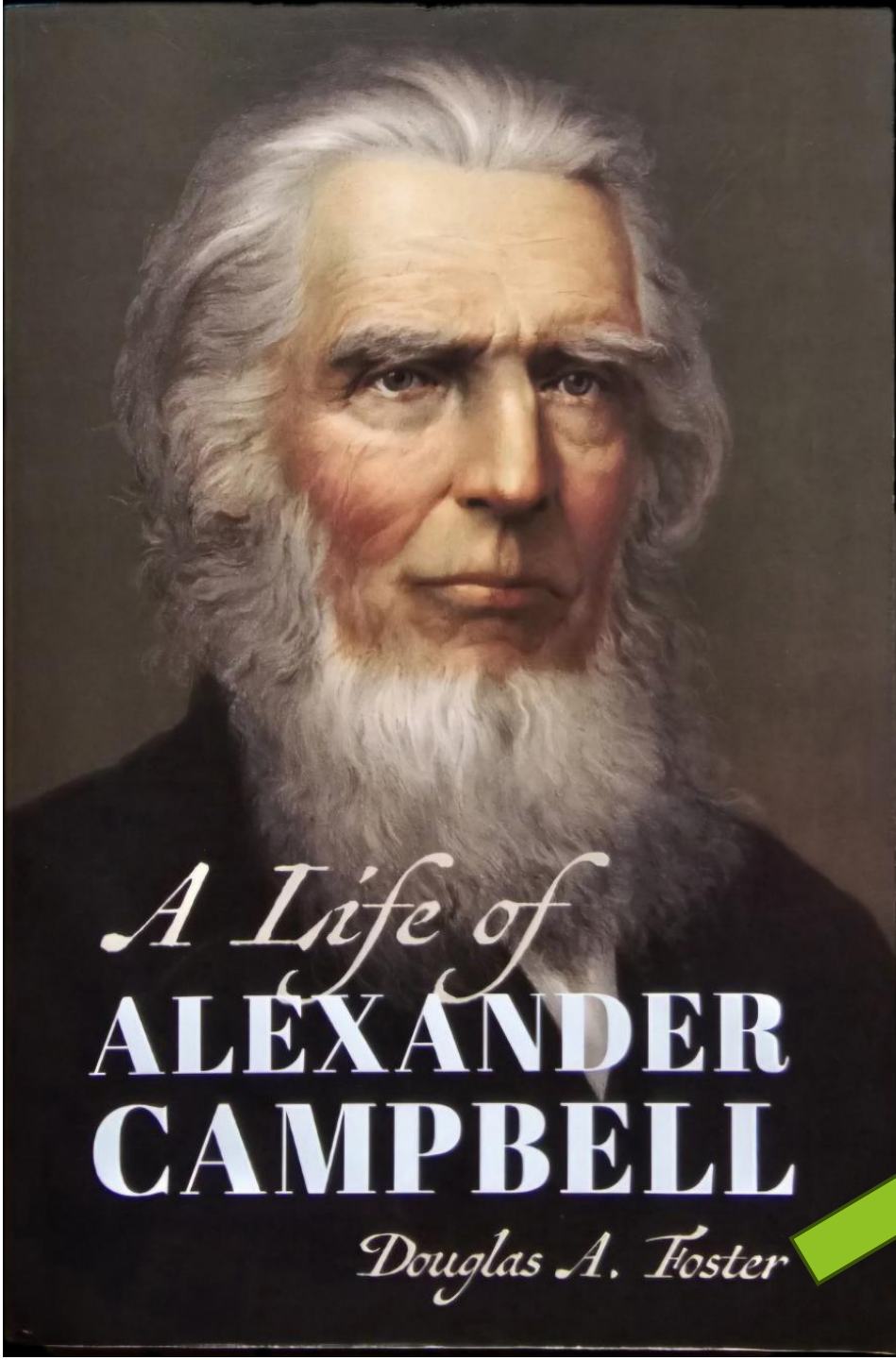
-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향, 상태, 그리고 특성 말고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지성적으로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만큼 칭의나 죄사함에 관한 확신을 완전하게 갖는 사람은 지상에 없다.
- 그러므로 **침례 받은 사람들이 현재의 구원을 즐기는 것만큼, 비록 다른 모든 것은 동등하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결코 즐길 수 없다.**”

## 캠벨이 루넨버그(Lunenburg) 서신 논쟁에서 밝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네 가지 중요성

- 신약시대 특히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의 신앙고백자 (professor)를 의미한다... 정치집단이나 철학의 학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에도 교파들이 있다.

## 캠벨이 루넨버그(Lunenburg) 서신 논쟁에서 밝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네 가지 중요성

-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고백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물 속에 장사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많은 사람들의 판단대로, 일부는 신앙고백을 바로 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고백을 잘못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 그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Douglas A. Foster*



# 제11장 존 토마스와의 루넨버그 서신

##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by Douglas A. Foste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 1837년 9월에 시작된 **루넨버그 서신 논쟁**은 3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촉발시켰으며, 이 모든 것이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버지니아 주 루넨버그에 사는 한 “양심적인 자매”**가 캠벨에게 보낸 서신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는 캠벨이 1837년 8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자신에게 동조하는 영국환원운동의 지도자이자 <영국판 새천년시대의 선구자>(British Millennial Harbinger)지의 편집자인 **제임스 월리스 (James Wallis)**에게 쓴 **논평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윌리스는 캠벨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단체, 노예제 반대 단체, 금주 단체 같은 조직들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지 여부를 물었다.
- 캠벨은 미국에서 개혁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그 이유가 그 단체들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종종 포함되기 때문이고, 그 단체들은 교회가 행하고 있을 일을 행하는 인위적 기관들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캠벨은 계속해서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우리 교회들의 소속이든 아니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캠벨은 “나는 모든 개신교 교파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그들과 우리의 상대적인 지식과 기회에 따라 우리 자신만큼 모범적인 것을 발견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는 윌리스에게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선한 양심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Letters to England No. 1,” Millennial Harbinger, June 1837, 272, 274.]
- 루넨버그에서 서신을 보낸 여성은 캠벨의 진술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글쓴이는 버지니아 교회 지도자 앨버트 앤더슨(Albert Anderson)의 아내인 루이사 앤더슨(Luisa Anderson)이었다.]

- 두 사람 모두 존 토마스(John Thomas)의 지지자였다. 그녀는 캠벨이 “모든 개신교 교파들을 그리스도인들로”(the Protestant parties as Christians) 인정한 것에 받은 충격을 피력한 후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 “아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속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장사된 자들에게 속합니까?” [“Any Christians between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 September 1837, 411.]

- 그해에 캠벨은 여러 논쟁들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4월에 만인구원론자 돌퍼스 스키너(Dolphus Skinner)와 서면 토론을 시작하였고, 1월에는 가톨릭주교 존 뱍티스트 퍼셀(John Baptist Purcell)과의 토론내용을 출판하는 일로 세부 사항을 놓고 그와 다투고 있었다.
- 또 캠벨은 자신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존 토마스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지도자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받았다. 토마스는 캠벨이 그 토론에서 배도한 개신교를 대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 캠벨은 갈등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회심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관해 침례교 목사 사무엘 W. 린드(Samuel W. Lynd)와 논쟁을 펼쳤고, 자신의 새 번역이 비삼위일체적이라고 비난한 두 개의 침례교 논문과도 논쟁 중에 있었다.

-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이 살아 있는 육체 그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의 존재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이 사후에 부활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영혼이 잠자는” (soul sleep) 상태에 남게 될 것이다.
- 게다가 토마스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가르치려는 열정에서 개혁(환원)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침례교인들에게 재침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다.
- **캠벨은 토마스의 재침례에 관한 입장, 영혼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 부활에 대한 견해를 비난하였다.** 논쟁은 184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1844년 토마스가 리치몬드 교회를 캠벨 운동에서 철수하여 나중에 ‘그리스도아델피안’ (Christadelphians)으로 알려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회’ (Brethren in Christ)를 결성하면서 마침내 단절되었다.

- 캠벨은 루넨버그 서신에 대한 답변을, 만약 개신교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가톨릭교인, 유대교인, 튀르키예인, 이교도 중에도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명제로 시작하였다.
- 그것은 수 세기 동안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자신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캠벨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시대의 복음과 관례가 확립된 이래로 자신이 취했던 입장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정의를 내렸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나는 대답한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에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의 분량대로 범사에 순종하는 모든 자다.”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1.]
- 그런 다음 캠벨은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의도적인 무지를 정직한 오해와 예리하게 구별하였다.

- 침례에 대해 착각한 많은 사람들(미침수자들)은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하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해하는 한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세례 하는 것조차도, 어떤 한 가지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품성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유아시기에 자신의 지식과 동의 없이 약식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로 간주한다.”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2.]

- 캠벨에게 있어서 **침례라는 중요한 행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궁극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찾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이것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확성에 있지 않고, 알려진 모든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에 있다.  
... 침수세례를 받은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론하는 사람은 명확하고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 외에는 살아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 만일 그가 **유아기에 약식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교 성경에 더 지적이고, 영성에 더 밝으며, 주님께 더 헌신적인” 사람과 침수세례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동의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우선권을 드림에 있어서 잠시도 망설일 수 없다”고 하였다.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2-14.]

- ...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의 친밀한 친절과 동정심 및 형편이 허락하는 한 활동적인 자선에 한계를 모르며, 그리스도인 집회에 결단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의무를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내적 경건과 헌신이 입증되며, 자신의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고, 성경을 자신의 항구적인 동반자로 삼는 사람을 ... **바울이 자신이 만들지 아니한 한 체계(할례)를 자랑한 유대인 형제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침수세례를 받은(자랑하는) 나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제여, 그의 무할례나 무침례가 그 사람에게서는 침례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자적이고 참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왕(하나님)의 법들을 범하거나 무시하는 당신을 그가(무침례자가)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Millennial Harbinger, December 1837, 565.]

- 캠벨은 “양심적인 자매”가 보낸 서신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 그녀는 존 토마스의 지지자였다. 토마스는 죄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심지어 침수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조차도, 침례 주례자와 피침수자가 죄사함을 위한 침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밖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캠벨은 버지니아 주 동부 소재의 자신의 개혁교회들에서 토마스의 지지자들이 다른 교파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총체적이고 부당한 모욕을 퍼붓고 있다는 소식에 속이 뒤집어졌다.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566; “Extra, No. I. - New Series,” Millennial Harbinger, December 1837, 580, 588.]

- 존 토마스와의 그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에는 **캠벨의 개혁운동에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은 운동의 정체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토론은 1839년 5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실린 **조지아 주 엘버트 카운티의 T. W. 러커(T. W. Rucker)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
- 러커는 캠벨에게 **교회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간청**하였다.[T. W. Rucker, “News from the Churches,” Millennial Harbinger, May 1839, 236.]
- 캠벨은 8월에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s), 개혁가(Reformers), 캠벨파(Campbellites)를 포함하여 그동안 사용되었던 호칭들을 나열하고 평가하면서 답변을 시작하였다.

- 캠벨은 오직 두 가지 명칭, 곧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적이라고 결론지었다. [“Our Name: Disciples, Christians, Reformers, Campbellites, Millennial Harbinger, August 1839, 337-39.]
- 9월에 캠벨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용어들 중에서 네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좋다고 제안하였다.
- 첫째, “제자들”이 오순절 날 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사용된 더 오래된 용어인 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불린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 둘째, 그것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나 제자에 근접하기보다 “그리스도인 국가”와 같은 국가적 명칭에 더 근접한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에서 단지 두 번만 쓰였고, 그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안디옥의 주민들과 헤롯 아그립바의 입을 통해서만 쓰인 반면에 “제자들”은 30회 이상 쓰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가장 흔하게 사용한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 넷째, 캠벨은 자신의 개혁운동을 따르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유니테리언파(Unitarians)와 아리우스파(Arians)로 착각할 것을 우려하였다.
- 유니테리언파와 아리우스파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행하지 않고 매 주일 주의 만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른 어떤 그룹도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캠벨은 주장하였다. [“Our Name,” Millennial Harbinger, September 1839, 401-3.]
- 이것에 대해 부친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월터 스콧(Walter Scott)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캠벨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은 몇 년 전 그들 각각의 운동들(역자 주: 캠벨의 개혁운동과 스톤의 그리스도인 운동)에 속한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합을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 **스톤은** 캠벨이 거론한 “제자들”을 선호하는 네 번째 이유가 개인적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이라고 느꼈다.
- 스톤은 “유니테리언”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자는 분명히 아니었다. 스톤은 침례를 베풀 때, 캠벨만큼 죄 사함을 위한 침례 교리를 믿었지만, “나는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주노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스톤은 당신(캠벨)이 교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도 같은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였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므로 교파들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 목적을 위해 침수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스톤은** 캠벨이, 그가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 알려진 새로운 교회(교파)를 만들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캠벨에게 해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압박하였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당신이 또 다른 하나의 교파를 세우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 삼위일체론자들과 협력하여 유니테리언들에 대항하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히 성경만을 신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화 하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경건한 신자의 의견이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교제에 빗장을 지르지 않기를... 형제님, 꼭 제게 통지해주십시오.” [Barton W. Stone, “Communication,” Millennial Harbinger, January 1840, 21-22.]

- 1837-1840년의 사건들에서 캠벨이 보여준 신학적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캠벨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게 했다. 캠벨이 때로는 “경건한 미침수자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던 반면, 다른 때에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캠벨의 모든 진술들은 당시 그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한 것이었지, 총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압박에 굴복하여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캠벨은 “한 주님, 한 믿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와 합하는 한 침수세례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되고 충성스러운 모든 친구들의 의무”라고 주장했고, “그리스도이후 1,200년간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는 모든 그리스도교 세계, 곧 히브리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의 관행이었다.”고 했다. [“Union,” Millennial Harbinger, November 1840, 486.]

- 또 캠벨은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 1851) 끝부분에 실은 교리문답 126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유아들에게 약식세례를 베풀거나 유아기에 세례를 베풀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캠벨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른 “인위적인 전통들”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 그리고 유아에게 베푸는 약식세례의 효과에 관한 128번에 대한 답변에서 캠벨은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과 그것의 정확성을 의심하거나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을 대조하였다. “전자는 단순한 실수이고 후자는 고의적인 범법이다.”

- 그러나 캠벨은 129번에서 진리에 접근하기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모두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침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그는 131번에서 단언하였다.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Bethany, VA, 1851), 433-34.]
- 이 논쟁의 결과로 알렉산더 캠벨의 환원운동권의 교회들, 특히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이후로도 재침례논쟁은 Churches of Christ에서 몇 차례 더 있었다.
- 1890년대에 발생한 재침례논쟁은 침례교회에서 받은 침례가 유효한가라는 것이었다. 존 토마스(John Thomas)의 견해를 채택한 오스틴 맥게리(Austin McGary)와 <확고한 터전>(Firm Foundation, 1884-2010)은 무효로 보고 재침례를 요구했고,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와 <복음 옹호자>(Gospel Advocate, 1855-현재)는 유효성을 인정하여 재침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 이 논쟁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갈라서게 하는데도 일조하였다. 오스틴 맥게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침례를 받아야 옳은 침례라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베푼 침례까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침례를 주장하였다.

- **데이비드 립스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어느 교단에서 받았던 상관하지 않았고, 재침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단, 침례교회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구원을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받는, 즉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침례라면, 그것이 비록 침수세례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립스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스틴 맥게리를 비롯한 재침례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행하는 침례를 침례교회와 같은 타 교단에서 행하는 침례와 동일한 것으로 싸잡아 비난하였다.
- **20세기 말**에 Churches of Christ에서 갈라져 나온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 (International Churches of Christ, ICOC)은 **킵 맥킨** (Kip McKean)이 1983년에 보스턴 오페라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스턴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보스턴 운동**’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 그 무렵부터 **킵 맥킨**은 침수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도(discipleship) 개념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동에 새로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 온 신자들한테까지도, 재침례를 받도록 요구했다.
- **킵 맥킨**은 ‘환원을 통한 혁명’(Revolution Through Restoration)이란 글에서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본 뜻은 ICOC에서 재교육을 받고 ‘참된 제자’가 된 자들만 침례 받을 자격이 있고, ICOC 목사들에게 받은 침례만이 올바르고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오직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 마무리

- Alexander Campbell 혹은 David Lipscomb의 침례에 관한 온건한 의견이 주류 Churches of Christ 혹은 주류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입장이다.
- Alexander Campbell과 John Thomas의 논쟁에서 얻은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
- 재침례논쟁을 정리한 논문, “A Brief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Rebaptism Controversy”와 “Lunenburg Letter.”  
<https://www.preachinghelp.org/sermons/bapt-out.pdf>  
[http://kccs.info/LunenburgLetter\\_English\\_Korean.pdf](http://kccs.info/LunenburgLetter_English_Korean.pdf)

# 환원운동가들의 두 가지 확신

1.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미완으로 끝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2.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사도전통)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Ancient Order of Things)을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펼쳤다.

# 미국 전국정신과 환원운동의 관계



- 우측 국장에서 흰머리수리가 부리에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라고 쓴 두루마리를 물고 있다.
- 좌측 국장 중앙에 황무지에 건설중인 피라미드와 그 위에 섭리의 눈이 있고, 하단에 미국 독립선언의 해인 “1776” 이란 숫자가 라틴어 문자(“MDCCLXXVI”)로 새겨져 있다.

-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의 상징으로써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13개 주를 통일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THE

# CHRISTIAN MESS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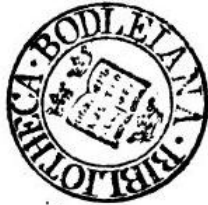
AND FAMILY MAGAZINE;

DEVOTED TO THE

DISSEMIN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ENLARGED SERIES:

VOL.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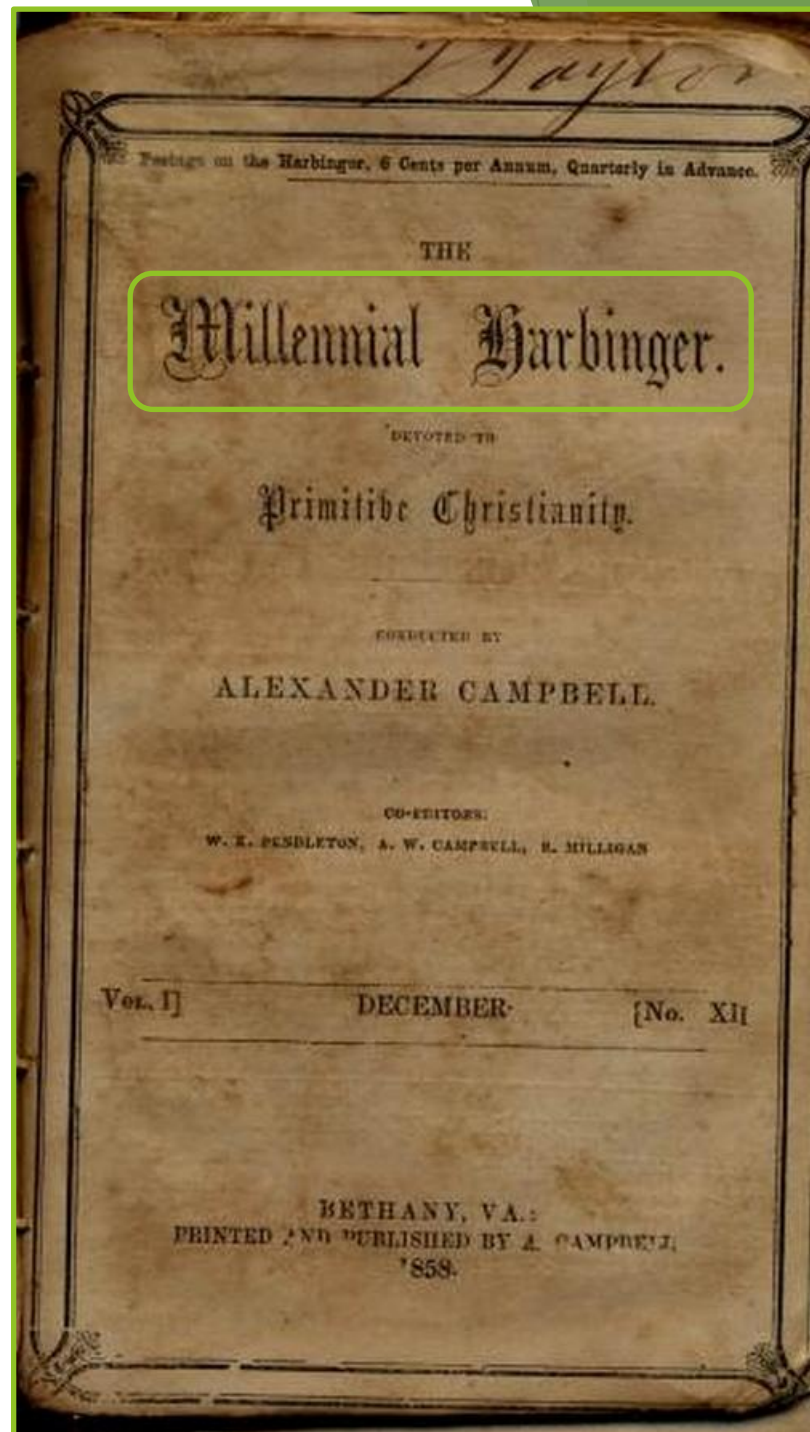


LONDON:

PUBLISHED BY SIMPKIN MARSHALL AND CO.,  
STATIONERS' HALL COURT;

AND MAY BE HAD OF THE BOOKSELLERS IN ANY PART OF ENGLAND,  
IRELAND, SCOTLAND, AND WALES.

1846.



#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의 당위성

## A. 목적과 방법

### ➤ 목적

- 종교개혁 이후 심화되고 있는 그리스도교 분열의 근원적 문제가 성경 해석의 원칙들이 통일되지 못한 데에 있다는 전제하에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이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옳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 방법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우위권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의 입장, 그리스도교의 입장, 환원운동가들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성경 해석방법을 통해서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의 신학적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 B. 성경해석원칙이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

- 첫째,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성경뿐 아니라 삶의 정황과 인간의 경험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 둘째, 신구약 성경전체를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신약성경만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 셋째,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사항들을 자유로 볼 것인가, 금지로 볼 것인가?
- 넷째, 특정 사항을 본질로 볼 것인가, 비본질로 볼 것인가?
- 다섯째, 특정 성구나 어휘의 뜻풀이를 문자적으로 할 것인가, 영적으로 할 것인가?
- 여섯째, 신학방법론, 성경비평방법론 등의 차이.

## C.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우위권 문제

### 1. 유대교의 입장

- 구약성경은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의 출범, 발전, 쇠퇴, 멸망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며, 토라 준수 여부가 나라와 민족의 흥망 성쇠를 결정짓는다고 믿기 때문에 100% 문자적으로 지킨다.
- 유대교인들은 신약성경을 허구의 책,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상숭배 라고 말한다.
- 유대교의 진정한 경전은 토라(모세오경)와 그 속에 담긴 613개의 계명들이다.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은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토라를 근거로 자기 민족의 잘잘못을 성찰한 글들이고, 성문서들은 예배와 신앙에 관련된 글들이다. 이 토라와 다른 글들의 비중은 그들이 회당기도회 때 읽는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눅 24:44)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교인들이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오전기도회 때 읽었던 성구와 매일 기도회 때와 성전(이스라엘의 뜰)에 오를 때 불렀던 시편을 말한다.
- “율법과 선지자”에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54개 (Parshiyot)로 나눠서 일년에 한 차례씩 완독하는 ‘토라’(Torah)를 말한다.
- “선지자의 글”은 토라와 함께 읽히는 ‘하프타라’(Haftarah)로써 역대 기서가 제외된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이 포함되는데, 해당 주(Parshah)에 읽히는 토라와 관련된 몇 개의 선별된 구절들만 읽힌다. 권위가 토라만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시편”은 기도서 〈시두르〉(Siddur)에 실린 매일 부르는 찬양들을 말한다. 오전기도회 때 ‘페수케이 드지므라’(Pesukei d'Zimra, 시편들과 시편에서 선별된 ‘노래 구절들’)와 ‘아쉬레이’(Ashrei, 시편 145편)를, 안식일과 축일 오전기도회 직후 바치는 추가 의식인 ‘무사프’(Musaf) 끝에 시편들이 낭송된다. 또 안식일 기도회 때 토라 두루마리를 법궤에서 꺼내 회중석으로 가져갈 때(34편, 99편)와 낭독 후 법궤로 원 위치될 때(29편) 시편들이 낭송된다. 성전멸망 전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4편)도 불렀다.

## Table of Weekly Parshiyot

Below is a table of the regular weekly scriptural readings. Haftarot in parentheses indicate [Sephardic](#) ritual where it differs from [Ashkenazic](#). There are other variations on the readings, but these are the most commonly used ones. If you want to know the reading for this week, check the [Current Calendar](#).

There are additional special readings for certain holidays and other special days, listed in a separate table [below](#).

Parshah	Torah	Haftarah
Bereishit	Genesis 1:1-6:8	Isaiah 42:5-43:11 (Isaiah 42:5-42:21)
Noach	Genesis 6:9-11:32	Isaiah 54:1-55:5 (Isaiah 54:1-10)
Lekh Lekha	Genesis 12:1-17:27	Isaiah 40:27-41:16
Vayeira	Genesis 18:1-22:24	II Kings 4:1-4:37 (II Kings 4:1-4:23)
Chayei Sarah	Genesis 23:1-25:18	I Kings 1:1-1:31
Toldot	Genesis 25:19-28:9	Malachi 1:1-2:7
Vayeitzei	Genesis 28:10-32:3	Hosea 12:13-14:10 (Hosea 11:7-12:12)
Vayishlach	Genesis 32:4-36:43	Hosea 11:7-12:12 (Obadiah 1:1-1:21)
Vayyeshev	Genesis 37:1-40:23	Amos 2:6-3:8
Miqeitz	Genesis 41:1-44:17	I Kings 3:15-4:1
Vayigash	Genesis 44:18-47:27	Ezekiel 37:15-37:28
Vayechi	Genesis 47:28-50:26	I Kings 2:1-12
Shemot	Exodus 1:1-6:1	Isaiah 27:6-28:13; 29:22-29:23 (Jeremiah 1:1-2:3)
Va'eira	Exodus 6:2-9:35	Ezekiel 28:25-29:21
Bo	Exodus 10:1-13:16	Jeremiah 46:13-46:28
Beshalach ( <a href="#">Shabbat Shirah</a> )	Exodus 13:17-17:16	Judges 4:4-5:31 (Judges 5:1-5:31)

- 유대교인들에게는 오직 두 개의 ‘하티크바’ (Ha-Tikvah, 희망)만 있다.
-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예배와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모쉬아크’ (Moshiach)가 나타나는 것(오늘날 유대교인은 ‘메시아’란 말을 쓰지 않음).
- 모쉬아크가 가져올 ‘올람 하바’ (Olam Ha-Ba) 곧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가 도래하는 것.
- 여기서 모쉬아크는 문자적으로 제2모세이고, 올람 하바는 문자적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이며, 하티크바는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애국가이다.

## 2. 그리스도교의 입장

### 1) 구약성경이 신약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

- 아놀드 A. 판 룰러(Arnold A. von Ruler)는 “구약은 하나님의 본래적이요 본질적이요 정경적인 (규범적인) 말씀이며, 신약은 구약의 해석학적 부록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룰러는 “구약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합법화로 기독교회에 필요하다... 구약이 기독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해석을 위해서이다”고 하였다.
- 코넬리스 H. 미스코테(Kornelis H. Miskotte)는 “구약을 ‘그 이름’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로, 신약을 구약의 기독교적 후속물로, 탈무드를 구약의 유대교적 후속물로 본다”고 하였다.
- 이 밖에도 제임스 바아(James Barr)와 휠러 로빈슨(H. Wheeler Robinson)이 구약의 신학적 역사적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한 사례들

- 가톨릭교회의 제사(봉헌)와 사제(제사장) 개념.
- 제칠 안식일(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준수를 고집하는 안식교회(재림론자 교회).
- 단일신론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증인.
-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몰몬교.
-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세대주의(시대구분론).
-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세대주의 성경해석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
- 피 뿌림과 할례를 모방한 약식세례와 유아세례.
- 반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인 에비온파(Ebionites).

-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고후 11:4, 갈 1:6-9),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갈 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빌 3:18),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다(갈 1:8-9).

## 2)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

-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구약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The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 프리드리히 바움게르텔(Friedrich Baumgärtel)-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약속: 복음적인 구약 이해에 답하여>.

-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 - 신약성경을 ...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어떤 책도 신약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라고 해야 한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함께 읽힐 때에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고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사도들이 확신한 대로 예수님과 관련성 속에서 읽는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는다... 신약성경은 구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면, 그는 구약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신약개론, 14-15쪽>**

# 신약개론

정훈택 지음

##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지은이 / 정훈택 교수

총신대학 신학과 졸업(B.A)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네덜란드 캄펜신학대학 졸업 (D.rs)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Dr.Theol)  
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신학 교수

저서

Aa n hun Vruchten zultgij hen Kennen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산상설교 (기록이유와 목적)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에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연구)  
신약에서의 기독교 윤리의 근거와 그 원인  
선교 21세기를 향한 신학적 도약  
21세기 그리스도인

결과인 것인 만큼, 이러한 소식, 즉 복음을 기록해 놓은 신약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을 들어야 한다. 또 지켜야 한다.

신약성경은 기독교인들만의 책이 아니다. 신약성경을 먼저 읽는 우리는 이 책을 누구에게나 전하고, 읽게 하고, 지키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다.

### 기독교의 경전

신약성경이 인류에게 주어진 인류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 책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신약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도 신약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경 앞에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책은 아니다. 구약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기에 이전에 유대교의 경전이었다. 그들도 아직 구약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신약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어가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독립하게 된 원인이었다. 혹은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지 않고 별개의 집단으로 존속하는 이유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속했다. 이렇게 보면 신약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라고 해야 한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함께 읽힐 때에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완성이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기초이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고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사도들이 확신한 대로 예수님과 그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구족의 의지와 속죄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으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며 구속자를 예언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옛 약속 즉, 구약(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새 약속 즉, 신약(성경)이라고 부른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구약성경의 성취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온 이름이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담고 있는 책들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역시 기독교의 경전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면 그는 구약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교회의 책

신약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그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저자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독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독자들은 그들에게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었거나 비슷한 처지에서 저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저자들이 예수

Trust vs. Faithfulness

much more faithful leaders

### 3. 환원운동가들의 입장

환원운동의 두 축이 일치운동과 환원운동이다. 그 가운데 한 축인 환원운동이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만큼 환원운동가들은 처음부터 신약성경의 우위성을 강조하여왔다.

#### 1)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가 아닌 것들로는 결코 “믿음의 조항”이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제3명제).

- 둘째, 신구약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통전적인 계시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경이 신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제4명제).
- 셋째, “신약성경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에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제5명제).
- 넷째,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제6명제).

## 2) 알렉산더 캠벨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율법에 관한 설교,’ 1816년 9월 1일, 28세 때)

● ‘옛 질서(직제)들의 회복’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이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침. <그리스도인 침례, 1823-30>

## 3) P. H. 웰시머의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

● “비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구약은 유대인을,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구약의 계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다시 제정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 4. 우위권 문제의 결론

-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원칙, 곧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대상인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
-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 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D.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성경 해석방법

### 1. 신약성경에는 해석이 있는가?

-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성경과 사도 전승의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해석으로 가득하다.
-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 구약성경 예언의 해석은 불가피하다. 복음서들이나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경해석에 관한 언급들
  - 구약성경을 해석한 사례들: 눅 24:27, 32; 행 17:3, 18:26.
  - 해석(설명)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 히 5:11; 벨후 3:16.
  -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권면: 벨후 1:20.
  -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언급: 벨후 3:16.

## 2. 신약성경 저자들은 무엇을 해석하였는가?

- 성경의 저자들은 전거의 해석자들이었다.
  - 구약성경의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은 토라를 민족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성찰의 전거(典據)로 삼았다.
  -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관한 구전전승과 구약성경을 전거로 삼았다.
  - 바울은 사도전승(안디옥교회의 전통 포함)과 구약성경을 전거로 삼았다.
  -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저자는 구약성경을 전거로 삼았다.
    - [누가복음 1장 1-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개정〉
    -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개정〉

-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해석할 때,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할 때, 전승과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영감으로 도우셨다(딤후 3:16).
- 성경은 신앙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길지는 신앙공동체의 정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 성경은 신앙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담긴 자료들은 지극히 선별적일 수밖에 없었다.
  - [요한복음 20장 30-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3. 신약성경 저자들은 왜 해석하였는가?

-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글이다. 구약성경이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지상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면, 신약성경은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요한은 복음서 20장 30-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다.
-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하였고, 그리스도교에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동족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후퇴하는 상황에서 구약성경을 풀어 “믿음과 인내”(6:12; 10:36)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계시록의 저자는 로마제국의 황제숭배 강요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믿음과 인내”(계 13:10; 14:12)를 촉구할 목적으로 구약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 승리자 그리스도(IC XC NIKA)=승리자 그리스도인(Christians the Conquerors, 롬 8:37)

#### 4. 신약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 1) 구조주의 모형적 해석

- 모형적 해석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을 “모형”(ὑπόδειγμα, 히 8:5; 10:1), “그림자”(σκιά, 히 8:5; 10:1), “비유”(παραβολή, 히 9:9), “표”(ἀντίτυπος, 히 9:23, 벧전 3:21) 등의 어휘를 사용할 정도로 신약성경 저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구조주의적(Structural)이었다.

-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은 신념체계이자 하나님의 뜻의 실체인 그리스도교 복음을 독자 들인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또 유대교인들의 패러다임(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613개의 계명들의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Gezeirot: 율타리 율법)을 건강한 상태인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로 설명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듯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건강한 상태가 유대교(예수님-종교지도자들; 바울-에비온파)의 병든 상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만든다.
-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나 율법 또는 유대교를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한 때 최상이었던 것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비교한다. 달빛은 밤에 유용하지만, 햇빛이 있는 낮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먹을 것이 귀했을 때에는 풀죽도 고마운 음식이었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지금은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처럼, 때때나 폴더폰도 한 때 유용한 기기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그와 같다는 점을 히브리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다.

-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토라)이 이스라엘이 지상 가나안 땅에서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듯이, 새천년시대(Olam Ha-Ba)로써의 교회천국이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모세오경의 모형을 좇아서 설명하고 있다.
-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교의 모세오경으로 편집되었다.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새천년시대인 가나안시대 직전까지의 역사이듯이, 마태복음은 새천년시대인 교회시대 직전까지의 역사이다.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출애굽사건과 가나안땅 정복에 잇대어 기술되었다. 누가복음은 평화군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님과 그의 군사들이 하늘 가나안땅에로의 오름(aliyah)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에 대한 실체적 모델로써 그 모형을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사건에 두고 있다. 누가복음-제2모세; 사도행전-새 출애굽 및 하늘 가나안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

-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이며, 새 여호수아서 이야기이다.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의 가나안땅 정복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도 땅의 '침노' (마 11:12)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 땅은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 가나안 땅이다.
- 요한복음은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어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모세 모형론, 출애굽 모형론, 신명기 모형론, 유월절 모형론으로 나눈다.
- 바울은 예수님을 제2아담으로 신령한 반석으로 소개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21절에서 제2아담 그리스도를 제1아담이 세상에 들어온 불행들을 바꿔놓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종말론적인 아담으로 설명하였다.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상실된 것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에, 홍해 건널목을 침례 받음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중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사건, 광야생활, 구름기둥(성령)에 있다.

-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유대교와 유대공동체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거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왜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희망하는 그리스도보다 우월한지를 명확히 밝혀주려고 구조주의 모형론을 사용하였다.
-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천사, 모세, 아론계열의 대제사장, 율법, 성막에 배, 불안하게 요동치는 지상 가나안땅과 같은 옛것들은, 실체요 새것인 신약, 예수님, 멜기세덱계열의 큰 대제사장, 복음, 그리스도교에 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고, 사라질 것들인데,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참과 실체와 새것을 거절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파하였다.

- 계시록의 저자도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의 강요 속에서 환난과 고통 당하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인내”(계 13:10; 14:12)를 강조하여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구약성경을 충실히 해석하였다. 따라서 계시록해석의 관건은 구약성경과 유대교이해에 있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구약성경과 유대교이해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고, 극히 일부분만 에녹서와 같은 외경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 2) 영적 해석

- 하바드대 신학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홀리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교수한 죠지 E. 라드(미주침례교 목사)가 ‘역사적 천천년설’을 설명한 글에서 주장(Robert G. Clouse,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7), pp. 17-40.)
- 첫째,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다. 사례: 마 2:15(호 11:1); 마 8:17, 행 8:30-35(사 53장. 비교: 사 11장).

- 둘째,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문제 삼는 이유이다. 사례: 롬 9:25-26, 4:11-16, 2:28-29(호 1:9-10, 2:23); 히 8장(렘 31:3-34).
-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구조주의 모형과 영적으로 해석한 것은 율법과 유대교의 병든 상태 때문이었다. 율법과 유대교의 병든 상태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교의 건강한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병든 상태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듯이, 문자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문자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교에 적용하였다.

## E. 신약성경교회 회복의 당위성

- 사도성은 처음부터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였을 뿐 아니라, 정경과 외경을 구별하는 잣대였다. 따라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은 이단들과 분열들로 얼룩진 오늘의 교회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개혁운동이다. 바울은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들에서 “배운 것”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다. 복음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는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불렀다.

-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한다면, 제사(봉헌)와 사제(제사장)개념을 도입한 가톨릭교회, 제칠 안식일 준수를 고집하는 안식교회, 단일신론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증인,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몰몬교,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세대주의,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안식일을 고수하며, 세대주의 성경해석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 피 뿌림과 할례를 모방한 약식세례와 유아세례, 반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인 에비온파(Ebionites)와 같은 폐단이 들어난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적 유용성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고후 11:4, 갈 1:6-9)을 전하는 자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갈 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빌 3:18),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다(갈 1:8-9).

- 이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원칙, 곧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과 원칙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을 구약성경에 ‘오실 자’로 예언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스라엘민족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것처럼 실추된 이스라엘의 주권과 명예회복과 구복지계(口腹之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민족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영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구조주의 모형론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은 신념체계이자 하나님의 뜻의 실체인 그리스도교 복음을 독자들인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또 유대교인들의 패러다임(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613개의 계명들의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Gezeirot: 율타리 율법)을 건강한 상태인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로 설명한다.
-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다. 둘째,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

- 환원운동가 토마스 캠벨이 <선언과 제언>에서 밝힌 대로, 신약성경이 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이다. 알렉산더 캠벨이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 밝힌 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 (essential difference)가 있다. P. H. 웰시머가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에서 지적한 대로, 비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구약은 감춰진 신약이고,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 우리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 그리스도교 신학자 프리드리히 바움게르텔이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구약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가 강조한 대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희망(Ha-Tikvah)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해석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인류구원에 유일한 대안인가를 설명한다.

- 이런 신학적 혹은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지난 3세기에 걸쳐 일치와 환원이란 두 가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치로 대표되는 대화, 화해, 평화와 환원으로 대표되는 근본, 기본, 기준, 표준, 본래성, 순수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교차시켜, 마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차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플러스가 되었는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플러스가 되게 할까를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여왔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의 당위성은 신학적, 해석학적, 선교적 활동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왔다.